

'샐러리맨 신화' 이금기, 독립경영 출발 2
"친환경 미래 사업 기업가치 높일 것"

올해 6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LG화학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지난달 1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하면서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왔다.
LG화학은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채권인 '그린본드'를 발행해 15억6000만 달러(약 1조7800억 원)를 조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그린본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글로벌 그린본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국제채권으로, 발행 대금의 용도가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의 친환경 투자로 한정돼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물량 공급을 위한 투자 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번 채권을 발행했다. LG화학의 그린본드는 달러와

유로로 발행되며 △5.5년 만기 5억 달러(고정금리 3.279%) △10년 만기 5억 달러(3.695%) △4년 만기 5억 유로(0.599%) 등 총 3개의 채권으로 구성됐다.
LG화학은 이번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일반 채권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를 조달했다. 미국, 유럽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한국 채권 중 역대 최대 주문 물량인 총 105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당초 예상 금리보다 최소 27.5bps(1bp=0.01%포인트)에서 최대 35bps 낮은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LG화학 COO(최고운영책임자) 정호영 사장은 "이번 글로벌 그린본드의 성공적 발행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번 자금 조달로 올 들어 약 3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달에도 이 회사는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요 물량 대

응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은 현재 유럽 시장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에 추가로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사업도 재개를 준비 중이다. 201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중국 배터리 사업은 올해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재개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LG화학은 1월 중국 난징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빅데이터 신사업도 허용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허용했다. ▶관련기사 8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와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은 카드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는 카드 이용 정지 이후 9개월 경과 시 자동 해지된다. 이 경우 소비자 불편과 회원 감소로 카드사의 과도한 모집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를 폐지하고 자동 정지 해지도 간편하게 바꾼다. 마이데이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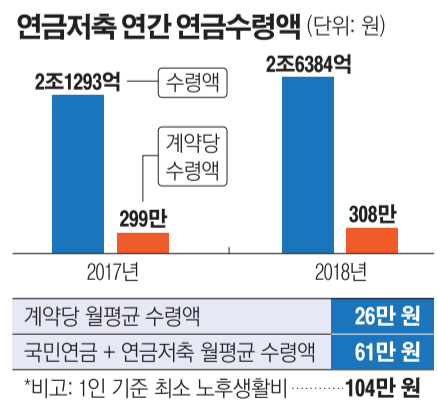
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허용한다. 카드사는 카드영업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발표안에는 카드업계가 요구한 기존 부가서비스 즉시 축소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부가서비스를 없애면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부가서비스 축소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카드 신규 상품에 포함될 부가서비스는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먼저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한하고,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 연회비 등 예측 가능한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부가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EU 집행위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말스트롬 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며 "(분쟁 국면으로 들어가기엔) 해당 국가의 평판도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5면

연금저축 해지 건수 신규 계약 첫 추월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 건수가 신규 계약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이후 해지가 신규 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 월평균 수령액도 26만 원에 불과해 노후대책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 원,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4.9%(6조4000억 원), 0.4%(2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가 4.2% 감소한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은 15.3%나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은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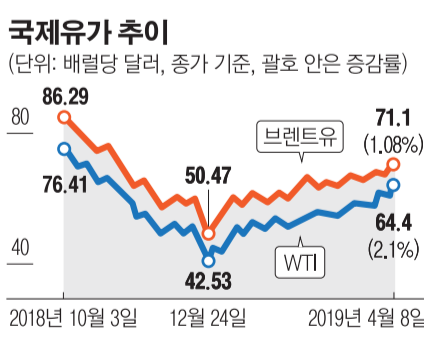
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 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60% 수준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국제유가 올들어 20% 쯤췌

OPEC 감산에 산유국 정세 불안... WTI 5개월 만에 최고치

하반기 배럴당 70~75달러 전망
국제유가가 올 들어 20% 이상 뛰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유가는 이란과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1% 급등한 배럴당 64.40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도 1.1% 오른 배럴당 71.10달러로,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 상승을 주도한 건 리비아 내전 격화 우려다. 리비아 통합정부군과 동부를 장악한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LNA)이 지난 주말 교전을 벌여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LNA가 수도 트리폴리로 진군해오자 미군은 전날 현지 주둔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다.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규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수요도 탄탄해 국제유가를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5일 발표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도 이날 유가 급등을 뒷받침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9만6000명 증가로, 올해 월 평균



18만 명과 전문가 예상치 17만5000명을 모두 웃돌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로 50년 만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유가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셰일유 공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반기에는 감산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상품리서치 대표는 "유가가 예년의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도 배럴당 70~75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샐러리맨 신화’ 이금기 회장, ‘독립경영’ 새 장 열었다



일동제약과 23년 만에 분리
지분 절반 이상 소유 홀로서기
직접 아이디어 낸 ‘노블커피’
시장조사 발로 뚫 ‘앤업카페’
식음료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일동후디스가 일동제약 그룹과 결별하고 ‘후디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금기(사진) 일동후디스 회장의 제품에 대한 유별난 애정이 독립경영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과 이금기 회장은 2월 말 일동후디스와 일동제약 보유 주식을 맞교환함으로써 일동후디스는 1996년 일동제약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지 23년 만에 분리됐다. 이 회장은 일동후디스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돼 독립경영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는 1996년 일동제약이 남양산업을 인수하며 출발해 23년간 식품 한 우물을 파왔다. 그동안 ‘분유’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돼온 일동후디스는 올해 독립경영에 발맞춰 식음료, 식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국내 대표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은 국민영양제 ‘아로나민’을 탄생시키고 ‘샐러리맨의 신화’를 쓴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1960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1년 만에 생산부장을 맡아 국민영양제 ‘아로나민’을 개발했다. 86세의 고령임에도 이 회장은 매일 서울 구의동 본사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은 물론, 지금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고 유튜브에 관심을 갖는 등 감각을 잃지 않고 활발하게 현역으로 서 기업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아이디어를 낸 대표적인 제품이 ‘노블커피’다. 2017년 말 출시된 노블커피

는 3월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을 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제품은 매일 아침 커피를 즐겨 마시던 이금기 회장의 까다로운 입맛과 건강에 대한 집념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그는 문득 ‘커피도 건강에 좋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직접 커피와 건강에 대한 논문을 수집했다. 사내 설문조사 등을 참고해 ‘커피는 건강에 해롭다’란 인식을 적극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카페인과 크림, 설탕에 대한 걱정이 높다는 점을 파악했다. 바람직한 커피 섭취를 위해 이 회장이 ‘노블커피’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폴리페놀과 코코넛 오일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생두를 그대로 커피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회장은 또 ‘노블커피’의 라떼와 믹스커피에 경화유지 대신 코코넛오일과 국산 1A등급 우유를 사용한 천연 크리머를 사용하는 방법도 택했다. 이금기 회장의 정성이 들어간 RTD (Ready to drink) 커피도 최근 호응이 좋

다. RTD를 주로 즐기는 2030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이금기 회장은 직접 편의점 앞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살펴보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 묻는 등 직접 시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2015년 6월 이렇게 탄생한 국내 최초 대용량 RTD ‘앤업카페’는 올해 3월 기준 편의점 누적판매량 5500만 개를 기록했다. 이 유식 브랜드 ‘아이밀’은 8일 브랜드명을 ‘아이밀’로 변경하고, BI 리뉴얼뿐 아니라 브랜드 콘셉트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했다.

하지만 일동후디스의 실적은 주력 제품인 분유 매출 감소로 인해 좋지 않은 편이다. 2017년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좋은 식품을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이금기 회장이 ‘홀로서기’에 나선 가운데 기업 실적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동우 대표 “택시요금으로 타는 ‘차차밴’ ... 승차공유 완성형 모델 추구”

〈차차〉

장기렌터카 대여한 드라이버
고객 콜 오면 대리운전기사로
택시업계와 수익 공유하는
‘차차택시’ 8월 서비스 예정

‘차차’를 서비스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한국형 P2P 모델인 자가용 대체 이동 공유 플랫폼 ‘차차’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역삼동 강남N타워에서 진행된 서비스 설명회에는 이동우 차차 대표와 김성준 명예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공유경제의 궁극

적인 목적은 비용 절감”이라며 “소비자가 공급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차차는 승합차를 기본으로 한 ‘차차밴’ 모델을 5월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친환경 위주 승용차량을 활용한 ‘차차베이직’과 11인승 다중계약 ‘차차밴 풀’을, 8월에는 일반택시와 고급택시를 아우르는 ‘차차택시’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차차밴은 15일부터 드라이버를 모집한다. 이달 300명을 시작으로, 8월에 1000명까지 늘리며, 1년 내 3000명까지 드라이버를 확장할 방침이다.

차차밴 서비스는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장기렌트차량을 기본으로 승차공유 경제를 완성하는 모델이다. 드라이버는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한국형 P2P 모델인 자가용 대체 이동공유 플랫폼 ‘차차’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기렌터카를 대여해 자신이 타고 다니며, 고객의 콜이 오면 그 순간 드라이버는 대리운전기사로 전환한다. 고객은 차량을 단기렌트하고 해당 차의 운전자를 대리기사로 고용하는 형태다. 차차밴 서비스의 요금은 기존 택시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차차밴 외에도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차차택시’도 공개했다.

택시업계에 플랫폼을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택시기사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유상증자를 통해 택시업계가 차차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파트너 드라이버에게는 초

기 1000명에게 주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2020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수단 서비스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견으로 인해 10월께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량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배회 영업’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가 합헌판정을 받으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대표는 “지난해 규제 이후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내며 한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생존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차차 모델을 통해 진정성이 있는 승차 공유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wp 한국서부발전

내일이 더 행복해지는 . . .
신재생 발전에 힘씁니다

한국서부발전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3020
한국서부발전이 지역 맞춤형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수상 태양광 사업을 통해
청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 1년새 1000억 상승... '脫금호' 힘 실리나

'경영 정상화' 향방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악화했지만, 현금창출 흐름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면서 빛을 띠어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호그룹의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은 7187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605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EBITDA란 영업이익에서 금융순비용,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둘 다 악화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 2456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626억 원에서 -1959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한마디로 돈은 더 거둬들이면서도 이익이 줄어든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 특성상 아시아나항공의 현금창출능력에는 문제 없다"며 "그만큼 지금의 유동성 위기는 영업 외적인 부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무리한 사업확장이 승승장구하던 아시아나항공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세전의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악화 그룹 돈줄 대다 유동성 위기 반증 채권단은 '분리 매각'으로 가닥 그룹측 '캐시카우' 넘길지 미지수

특히 2006년, 2008년 인수한 대우건설, 대한통운이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단초가 됐다.

대우건설 풋백옵션으로 생긴 막대한 채무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채권단 자율협약 과정을 밟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금호산업 인수과정에서 알짜 자회사 금호터미널을 박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27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MOU' 만료를 앞두고, 임시로 한 달 연장한 상태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자구책을 만들어 산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채권단의 부채탕감 등의 문제는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느냐를 본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 고위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금호에서 분리하길



바랄 것"이라며 "지금도 아시아나항공을 눈독들이는 PEF들이 많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일부 채무를 조정하고 매물로 내놓으면 팔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그룹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넘길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나를 넘기면 실질적으로 남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

다. 업계 관계자는 "웅진이 코웨이를 내놨다가 최근에 다시 사들인 것처럼, 만약 아시아나항공을 내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는 최근 웅진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코웨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웅

진그룹은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2007년 극동건설, 2010년 서울저축은행을 사들였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은 결국 부실로 돌아왔다. 2012년 웅진그룹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울며 겨자먹기'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MBK파트너스에 코웨이를 매각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대형 PEF, 아시아나 인수 관심 부채탕감·박삼구 떼내기가 관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한국내 유력 PEF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이 펀드는 운용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국내 톱5 규모의 사모펀드다.

기업행동주의를 표방한 '강성부 펀드'와는 다르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각해 차익을 얻는 일반적인 '바이 아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영권 다툼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모펀드가 해볼 만한 일"이라며 "현 위기는 오히려 잘못된 경영 때문이지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PEF가 아시아나항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항공업의 특성 탓이다. 진입장벽이 높고 현금흐름이 좋아 인수 후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 수익성이 좋은 '캐시카우'라는 평가다.

게다가 진입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에 민감한 대기업보다 PEF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간 항공사업을 양수·도하게 된다면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분 취득은 신고사항으로 허가 과정이 필요 없다.

그는 "국내 대기업이라면 자본금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사 등의 범외

경력, 외국인 포함 여부 등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항공 사업 허가를 내줄 경우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대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다. PEF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감당할 자급력이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한 선행조건이 될 전망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산업은행 채권단 등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PEF가 인수해 계열사를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부채에서 채권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금융기관이 탕감해줘도 부채가 상당하다. 시장에 풀린 ABS 등도 걸림돌이다.

위기를 초래한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넘기느냐도 관건이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물러났으나 계열사 지분은 그대로 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33.49%를 보유한 금호산업이다.

박 회장 등이 67.6%를 보유한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지분 45.30%를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M&A를 진행하려면 채권단과 박 회장, PEF의 협의가 필요한데 박 회장이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는 PEF가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뒤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절세혜택

TAX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가입장려금

상해보험(2년), 경영자문, 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자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자산대입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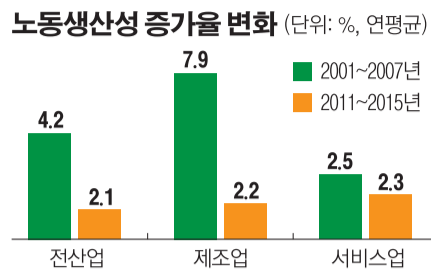
<4.2%→2.1%>

글로벌 금융위기 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반토막

제조 7.9→2.2%·서비스 2.5→2.3%·고위기술 14.5%→6.8%
 “규제 완화·구조개혁 통한 노동·자본 효율적 배분 유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반토막 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하락폭보다 크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폰 등 수출주력산업에서의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미래 먹거리를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이다. 9일 한국은행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년 생산성계정'을 이용해 분석 발표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1~2007년) 4.2%에서 위기 후(2011~2015년) 2.1%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7.9%에서 2.2%로 5.7%P, 서비스업은 2.5%에서 2.3%로 0.2%P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하락폭(-0.9%P)에 비해 큰 편으로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핀란드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2.1%) 자체는 폴란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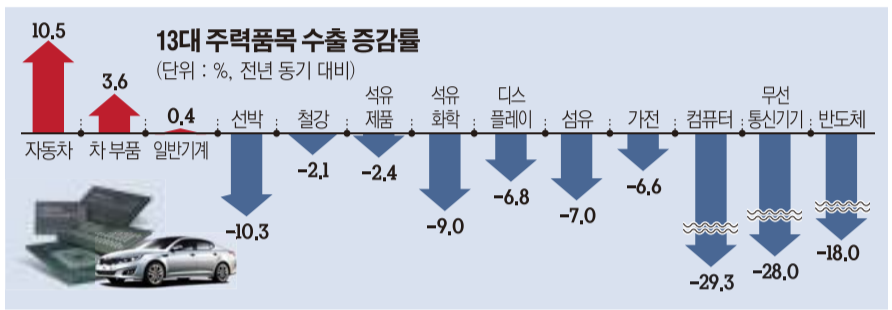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소위 고위기술(금융위기 전 14.5%→위기 후 6.8%, 이하 동일)의 하락폭이 컸다. 기계와 자동차, 선박 등 중고위기술 산업(6.5%→0%) 역시 큰 폭으로 둔화했다.

이는 노동이나 자본 등 양적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효율성 개선, 사회시스템 개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조업 둔화폭 5.7%P에서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5%P에 달했다. 반면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은 멀다. 실제 금융위기 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87달러) 대비 59%, 독일(81달러) 대비 63% 수준에 그친다. 서비스업도 22달러로 미국(60달러)과 독일(56달러)과 비교해 각각 37%

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교적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고위기술 업종 역시 95달러로 미국(131달러)과 독일(1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강태수 한은 전망모형팀장은 “금융위기 후 우리 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수출주력산업이 밀집한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약화했다”며 “제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과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할랄 인증 한우 맛있군요” 9일 강원 춘천시 남이섬에서 주한 이슬람권 외교관 초청 국내 첫 할랄 인증 한우 시식회가 열렸다. 주한 이란(왼쪽부터)·수단·이집트 대사, 김동익 한국이슬람교 이사장,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가 한우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력산업 수출 뚝... 뚝... 뚝... 제조업 생산·투자·고용도 타격

컴퓨터 -29.3%·반도체 -18%
2월 제조업 가동률 71%로
“품목별 수출 제고 대책 시급”

우리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등 주력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생산·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반도체 단가하락 지속과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기간 13대 주력품목의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자동차(10.5%), 차부품(3.6%), 일반기계(0.4%)를 제외한 컴퓨터(-29.3%), 무선통신기기(-28.0%), 반도체(-18.0%), 선박(-10.3%), 철강(-2.1%), 석유제품(-2.4%), 석유화학(-9.0%), 디스플레이(-6.8%), 섬유(-7.0%), 가전(-6.6%) 등 10개 품목이 감소세였다.

13대 주력품목의 수출액은 약 327억 달러(지난달 기준)로 전체 수출액(418억 달러)의 78%에 달한다.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결국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제조업 생산 감소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2월 2.5%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제조업 가동률은 올해 2월 71.2%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66.5%)에 근접한 수준이다.

설비투자(전년 대비)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반도체 경기 하강에 따른 반도체제조기계의 수입 급감 등으로 작년 12월 -15.1%, 올해 1월 -17.0%, 2월 -26.9%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력산업 수출 부진→제조업 생산 감소→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고용 역시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전년 대비)는 작년 12월 12만7000명이 감소했으며 올해 1~2월에도 각각 17만 명, 15만1000명이 줄었다.

황종률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생산·투자·고용 감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도체 등 품목별로 수출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말 많고 탈 많은 '제주신공항' 운명은?

17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검토위 첫 회의 동시 열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17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업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활동 재개에 합의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첫 회의도 이날 예정돼 있어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제주도 성산읍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 항공수요 검토 및 이에 따른 적

정한 인프라 계획 △소음피해·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주로 배치 방안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과 성산읍 주변 공역 검토 사항 △공항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용역에 충실히 반영,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종료하고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 단계를 지역에 공개하

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토위의 첫 회의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다. 5일 당정 협의에 따라 국토부와 대책위는 2개월간 검토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검토위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2개월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 일정과 형식·방법은 회의에서 결정한다.

검토위의 첫 회의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가 제주 제2공항 갈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올 제약산업 육성에 4800억 투입

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등 구축... 수출 민·관 '맞손'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4779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2017년 12월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중장기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이다. 1년차인 지난해엔 제약산업 육성 등에 4324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정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신

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우리 제약기업들의 수출도 지원한다.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해 우리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추진과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하고 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에 대해선 다음 달 중 인증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6월 초 심의의 결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범칙금 13만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으로 정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울린다.

정부는 또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목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주요 비위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관명과 위반 사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1명 기준>

고교 무상교육 올 첫발... 가구당 年 158만원 절감

당정청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2021년엔 전면 시행”
2조 예산 정부·교육청 반반 부담... 대통령 공약 1년 앞당겨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고3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2조 원 정도의 예산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 가구 등 40~50대 서민층 중심으로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

로 제시한 정책으로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학생수는 2019년 기준 137만 명이다.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소요액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또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에 관계 없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기	대상(인원)	재정소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49만 명)	3900억 원 (재정 소요)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88만 명)	1조3000억 원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126만 명)	2조 원

라며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생,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 교육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고교 무상 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늑푹하지 않은 국가 재정 여건하에서도 초·중고 무상 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문 대통령, 트럼프와 北 단계적 보상 논의

한미 정상 2시간 회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1박 3일간의 미국 공식 실무방문 성과에 따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미국시각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날 11일(현지시간) 정오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과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단계적인 상응 조치 이행이라는 중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중요한 것은 톱다운 방식을 기속하며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독립운동 애국지사 봉송행렬
이낙연 국무총리(맨 뒤)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재수 애국지사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태연 애국지사와 강영각 지사의 유해 봉영식에서 봉송행렬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6% 유지”

美·유로존 등 줄줄이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IMF는 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내년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3.7%)보다 0.4%포인트(P) 낮은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 및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딜(No deal)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등 금융긴축 촉발요인과 무역긴장,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추가 하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은 2.3%로 0.2%P, 유로존은 1.3%로 0.6%P, 캐나다 1.5%로 0.5%P, 러시아는 1.6%로 0.2%P 각각 내렸다. 특히 유로존에선 독일(-1.1%P)과 이탈리아(-0.9%P)의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올해 전망은 1.8%로 0.3%P, 신흥개발도상국은 4.4%로 0.3%P 각각 내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포함한 핵심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며 “(분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도 심한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선택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생명
디지털 금융으로
따뜻한 보험을
그려갑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금융
모두가 누리는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
AAA 11년 연속 최우수등급(신용평가)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11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만족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우수율연속 9년 연속 선정(한국서비스품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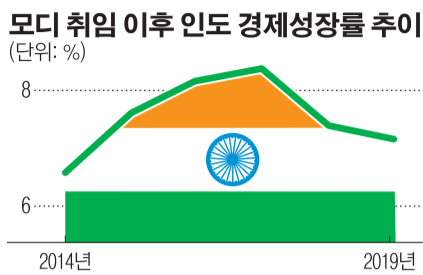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위

이러한 함께 하는 여정만 보면 신한생명

‘모디노믹스’ 평가 ‘극과 극’... 9억 표심 어디로

인도 총선 D-1

화폐개혁 실패, 실업률 45년來 최악 GDP급성장에도 국민체감은 글썽 모디 심판론 부상... 재선 여부 촉각



9억 명의 표심을 묻는 인도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도에서는 4월 11일(현지시간)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29개 주에서 총선이 실시된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의 재선 여부다. 2014년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모디는 집권당 인도 국민회의(INC)의 60년 야성을 무너뜨렸다. 인도판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를 외쳤던 모디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심판인 셈이다.

언뜻 보면 인도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경제 규모는 유럽의 강국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올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모디가 취임한 2014년보다 1조 달러 증가했다. 1인당 GDP도 2014년 1600달러에서 올해 2200달러로 35%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45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2014년의 2배에 달한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실란 사 수석 경제전문가는 “모디 정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많은 개혁이 있었다”며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도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모디의 재선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CNN은 평가했다.

대표적 실패는 모디 총리의 화폐개혁 이후 인도 경제 성장 속도가 급격히 꺾였다는 점이다. 2015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던 인도 경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더뎠다.

CNN은 그 원인으로 모디가 2016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을 꼽았다. 당시 모디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부패와 검은돈 근절’이 이유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86%가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몇 달 뒤 단행한 세제 개편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제 개혁은 현금 사용 급지로 휘청거렸던 기업들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렸다. 작년 초 8.2%였던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화폐개혁 여파로 연말엔 6.6%까지 떨어졌다. 프롭남 센 국제성장센터의 인도 국장은 “모디 정부의 가장 큰 오점은 바로 화폐개혁”이라며 “이 실패가 다른 좋은 성과들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일자리 감소다.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일자리 1100만 개가 사라졌다. 실업률이 6.1%로 4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재선을 노리는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인도를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디 총리가 소속한 인도 인민당(BJP)도 2025년까지 GDP를 5조 달러로 끌어올려 4위인 독일을 제치겠다는 야심을 밝혔다. 그러나 CNN은 “모디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지만 여론조사 진행될수록 그의 경제 공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인도 총선을 앞두고 서벵골주의 실리구리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집권 인도인민당(BJP) 지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가면을 쓰고 환호하고 있다. 인도는 11일 543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시작된다. 유권자 9억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해 모디 총리와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홀 간디 총재가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패와 경제정책 실패로 2014년 모디에게 패한 간디 총재는 ‘모디노믹스’ 심판론을 앞세워 정권 탈환에 나섰다. 실리구리/AFP연합뉴스

‘보잉’으로 뺄 맞고, ‘에어버스’에 눈 흘기기 트럼프, EU와 관세전쟁 터뜨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관세 전쟁에 돌입할 조짐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밤 “EU가 프랑스 항공-방산 업체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이 약 112억 달러(약 12조804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비롯해 스키복, 오토바이, 치즈, 와인, 농산물 등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보잉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결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에 처한 보잉을 구하고자 EU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잉은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주가가 약 11% 떨어졌다. 이달부터 20% 감산하기로 하

“EU 보조금 지급으로 美 피해 항공기·헬기 등 高관세 검토”

면서 8일에도 전일 대비 17.41달러(4.44%) 급락한 374.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USTR는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들며 “EU는 WTO의 지적을 수용하고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당국과 협의의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WTO에 제소한 뒤 14년간 진행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보조금을 없애고 EU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보조금을 폐지하면 관세를 바로 철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에 처음으로 EU의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의 조사 결과, EU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총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자 미국은 2012년에 또 WTO에 이 문제를 제기, 지난해 5월 EU 보조금이 자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EU는 WTO에 미국이 추산한 피해액 112억 달러가 부풀려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WTO는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입은 정확한 피해액을 올해 말 발표할 전망이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日, 20년 만에 ‘지폐 얼굴’ 바꾼다

일본 정부가 20년 만에 지폐 디자인을 바꾼다.

일본 재무성은 9일(현지시간) 1000엔과 5000엔, 1만 엔 지폐 디자인을 2024년 상반기까지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지폐 디자인 변경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노구치 히데오가 새겨진 1000엔권은 일본에서 ‘근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기타자토 시바사부로로, 히구치 아치요가 새겨진 5000엔권은 쓰다대 설립자이자 교육자인 쓰다 우메코로 바뀐다. 또 후쿠자와 유키치의 초상이 그려진 1만 엔권은 기업가이자 은행가 시부사와 에이이치로 바뀔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왕 교제로 5월부터 연호가 ‘레이와(令和)’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지폐도 쇄신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지폐의 뒷면도 바뀐다. 1만 엔권에는 도쿄역사(驛舎), 5000엔권에는 등나무, 1000엔권에는 우키요에(일본화)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명작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가 들어간다.

각 지폐에는 세계 최초의 위조방지 기술이 채용된다. 최신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 지폐를 기울여도 3D 초상화가 똑같이



보이는 식이다.

지폐 디자인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판매기 등 관련 수요가 발생해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된다. 지폐가 바뀌면 기업들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자동판매기 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지폐 디자인 변경 소식에 이날 일본 증시에서는 일본금전기계, 글로리, 오이즈미, 도시바테크 등 지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독립경영 우선... 소프트뱅크 추가투자 안 받겠다” ‘인도판 우버’ 올라, 손정의 ‘승차 거부’

전 세계 스타트업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를 유치하고자 혈안이 된 가운데 한 인도 스타트업이 손 회장의 추가 투자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도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올라(Ola)다. 올라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바비쉬 아가르왈은 경영 독립성 유지를 중시해 소프트뱅크의 추가 출자를 거부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했다.

두 회사는 소프트뱅크가 2014년 올라에 2억10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가르왈 CEO는 손정의 회장이 11억 달러(약 1조 2565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는 대신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올라 지분율을 40% 이상

으로 높이려 하자 이를 거부했다. 소프트뱅크가 우버와의 합병을 요구하면서 경영 독립성 유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프트뱅크에서 거액을 유치하는 쉬운 길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서 자금을 유치해 몸집을 불린 뒤 증시에 상장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다른 행보다.

인도 IT 서비스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벤처투자자 모한다스 파이는 “누군가가 이사회에 앉아 지휘봉을 휘두르면 창업주는 직원 신세로 전락하기 마련”이라며 아가르왈을 옹호했다.

올라 대변인은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프트뱅크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우리가 인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업을 구축하면서 소프트뱅크와 매우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양사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손정의(왼쪽)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바비쉬 아가르왈 인도 올라 CEO가 인도 차량공유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 아가르왈 트위터

대신 아가르왈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라는 올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 달러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트의 사친 반살 공동창업자에게는 9000만 달러를 각각 유치했다.

올라는 현재 인도 100여 개 도시에서 130만 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음식배달 사업에도 나서 우버이츠, 조마토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5만원 대로
5G를 무제한!
5직 유티플러스에서만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에서 [5G 요금제]까지

4/3부터 6/30까지

프로모션 기간(19 4/3~6/30) 중 선택약정할인으로 '5G스페셜' 요금제를 가입한 동시에 'LTE 요금 그대로 약정할인' 프로모션을 가입할 경우, LTE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78' 요금제를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프로모션 기간 내 '5G스페셜' 요금제 가입 시 '19 12/31 까지 데이터 무제한 제공. 약정기간은 24개월 유지.



신용카드 '출혈마케팅 방지법' 만든다

금융위, 카드사CEO 간담회

대형가맹점·법인회원 대상
결제액 0.5% 초과 혜택 제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
수익성 다변화 새 먹거리 제시

주제	과제	일정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마이데이터 사업 경영 허용	법인 국회 계류중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경영 허용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근거 명확화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영업행위규제 완화 레버리지 규제 개선 카드사 마케팅비용 지출 건전화 방안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2019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	2019년 중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대형가맹점 부당한 보상금 등 제공 제한	

※출처: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고비용 영업 구조 개선 방안'에는 대형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대한 카드사 제재안이 담겼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가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과 대형 법인회원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관 6개 카드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후속 조치다. 수수료 개편에 따라 일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등 카드사 수익 악화가 우려

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소비자가 발급받아 이용 중인 신용카드의 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기존 부가 서비스 혜택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부가서비스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대신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을

제한한다. 캐시백·인센티브·수수료 면제 등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카드 결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법인 회원의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 대형 가맹점에 여행 경비 제공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에 새로운 먹거리도 일부 제시했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업 업무로 규정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 감독규정을 개정해 여신전문회사의 렌탈 업무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단기대여를 금지하고 렌탈 가능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등 '반쪽짜리' 렌탈사업에 불과했다. 이 밖에 일정 기간 미사용 카드를 자동 해지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자와 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사 수수료 관련 약관변경 업무 신청시 심사 기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논란 중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대책은 언급도 안 됐다"고 말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TF 결과 발표 직후 대책회의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날 오전 총파업 돌입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8일 카드노조는 TF 결과 발표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이문환(왼쪽) BC카드 사장과 까르띠까 위르요앗 모조 만다리은행장이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만다리은행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BC카드

BC카드-인도네시아 만다리은행 디지털 결제 서비스 '맞손'

BC카드와 9일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다리은행과 디지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만다리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문환 BC카드 사장과 까르띠까 위르요앗모조 만다리은행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문환 BC카드 사장은 "디지털화로 전 세계 결제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양한 트렌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결제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BC카드가 보유한 디지털 결제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결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BC카드와 만다리은행은 함께 구축한 '인도네시아판 BC카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BC카드의 QR결제와 페이스북 플랫폼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디지털 결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BC카드와 2014년부터 만다리은행과 카드결제 매입 시스템 구축, 카드 가맹점 인프라 확대 및 단말기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했다. 앞으로 BC카드와 만다리은행 등 현지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양한 국기를 대상으로 핀테크 기반 신규 사업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금융, 나홀로 호실적... '리딩뱅크' 굳히기

1분기 순익 4% 늘어 9050억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한 증가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실적이 지주사에 편입되면서 '리딩뱅크' 굳히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와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9050억 원으로 추정된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한 '플러스' 증가율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 부문 실적이 꺾였지만, 지난해 품에 안은 오렌지라이프 성적이 본격 반영되면서 바닥을

다졌다.

본업인 은행은 시장금리 급락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이 1.6%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대출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여파를 딛고 2%대 성장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소비자금융(PVFC), 아시아신탁 등 속도감 있는 인수합병(M&A) 속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유기적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막판 신한금융에 1위 자리를 빼앗긴 KB금융은 1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8280억 원이다. 전년 대비 14.5% 축소됐

다. 1000억 원이 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데다, 보험과 카드 부문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보험과 카드 부문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며 "2~3분기에는 9000억 원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 4위 간 경쟁도 치열하다. 하나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58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비용 약 1100억 원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산 손실이 400억 원가량 발생했기 때문이다. 울 초 '5대 금융지주'로 복귀

금융지주사 1분기 실적 추경치

종목명	순이익	전분기 증감	전년동기 증감
신한지주	9,050	72.8	4.1
KB금융	8,280	329.5	-14.5
하나금융지주	5,820	66.4	-14.8
우리금융지주	5,630	-	-

※ 출처: 예프앤가이드

한 우리금융은 몸집을 빠르게 불려 3위를 맹추격하고 있다. 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5630억 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한된 여력(올해 표준등급법 적용으로 자본비율 하락) 안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확대된 출자 여력을 바탕으로 내년 본격적인 M&A에 나서면 하나금융을 넘어서는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회생 보고서

⑥ 일본항공

회계 업계에서 항공(航空)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업황이랄 게 딱히 없다. 여러 변수에 따라 불황과 호황을 넘나드는 조선·해운업과 다른 지점이다. 어쨌든 비행기는 계속 뜨고 내리니까. 또 현금을 거머쥐기도 쉽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하루만 결제를 안 해도 취소가 되는 걸 떠올리면 된다. 한마디로 항공은 꾸준히 현금을 도박도박 벌어들이는 효자사업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항공사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진행형'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과거 일본에서 법정관리를 거친 일본항공(JAL)도 그랬다.



조직 혁신 일군 '아메바 경영' ... 재도약 활로를 열다

◇관치의 그늘... '하늘의 일본'의 추락 = 2조3000억 엔(약 23조6000억 원). 2010년 1월 JAL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부채 규모다. 재산보다 빚이 8700억 엔 많은 상태였다. 도덕적 해이,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하늘의 일본'이 바닥으로 추락한 순간이다.

1951년 설립된 JAL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영 체계를 30년 넘게 이어갔다. 1987년 민영화가 됐지만 국영기업의 부정적 그림자는 그 이후로도 짙게 남았다.

자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돈 되는' JAL을 이용했다. 지역이기주의에 JAL이 희생당한 것이다.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 공항에 취항하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방공항 유지·관리를 명분으로 JAL로부터 과도한 공항 사용료를 징수했다. 거품노선은 국제선에서도 많

았다. 일례로 JAL은 상파울루행 노선을 LA와 뉴욕 경유로 나눠 운행했다. 하와이 호놀룰루행 비행기가 출항하는 공항이 8개 도시에 산재해 있었다.

낙하산 인사도 갈수록 늘었다. 민영화 이후 하나둘 늘어나는 자회사에는 전직 국토인수성 관료와 퇴직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경영 실적은 뒤로 한 채 보수와 연금으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만 급급했다. 2002년 일본항공시스템(JAS)을 무리해서 합병한 것도 독이 됐다. 인수 당시 JAS는 별다른 매력 없었다. 인건비도 높았고 구형 항공기 비중이 높았다. 노선망에서도 별다른 경쟁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정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중에 항공 수요 급감이 현실화하자, JAL은 돌이킬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민영화 뒤에 숨은 '관치의 그림자'
설립 30년 만에 민영화됐지만 적자 감수하며 지방공항 취항 등 정치 권력에 떠밀려 희생 강요

부실기업 뇌관된 구조적 문제
관료 '낙하산 인사'·무리한 M&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구원투수에 이나모리 교세라 명예회장
기업 조직 세분화해 분권형 경영 리더 육성·자회사 매각 등 승부수 법정관리 14개월 만에 회생 성공

◇'부실 덩어리' JAL의 재비상 = 오랫동안 굶은 JAL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했다. 일본 정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 교세라 명예회장을 호출한다. 그는 2013년 3월까지 JAL의 회장직을 맡았다. 보수는 '0원'이었다. "JAL은 경영철학도 목표와 전략도 없는 부실 덩어리 자체다."

JAL의 현황을 이렇게 꼬집으며 등판한 이나모리 회장은 리더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 달 동안 매주 4회씩 경영간부 50여 명에게 리더교육을 했다. 이나모리 회장도 참석해 강의를 하고, 교육 후 간부들과 생맥주를 먹으며 토론을 했다.

경영조직도 혁신했다. 과거 교세라의 경영원칙이었던 아메바 경영을 도입했다. 아메바 경영이란 기업을 작은 조직으로 세분화해 인사, 자금, 기술 등 자원 배분 결정

권을 맡기는 분권적 경영시스템이다. 5~10명으로 이뤄진 아메바는 하나의 작은 회사처럼 운영됐다. 권한과 책임이 작은 조직에 분산해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영업 부문 직원들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분투하고, 생산 부문은 경비 절감과 함께 수익 창출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연간 800억 엔의 비용을 절감했다.

구조개혁도 병행했다. 자회사를 절반 가까이 매각하고, 인건비와 퇴직금을 각각 20%, 30% 줄였다. '돈 되는' JAL이 무게를 줄이고 원칙을 세우자 날아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다. 2012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선 지 1년 2개월 만에 JAL은 회생에 성공했다. 1745억 엔. 2017년도 JAL의 영업이익이다. 2009년 영업손실이 1337억 엔에 달했던 JAL은 2010년 이후 연이어 영업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금호그룹 자금줄 '아시아나' ... "이대로 가면 JAL처럼 디폴트"

기रो에 선 아시아나

"아시아나도 JAL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디폴트예요."

한 회계업계 고위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현황을 이렇게 짚었다. 최근 '감사의 견 한장' 사태 이후 아시아나의 부실이 가시화됐다. 아시아나 위기도 JAL처럼 구조적인 문제에서 왔다. 금호그룹을 위한 '돈줄' 역할을 하면서 그룹 차원의 부실을 아시아나가 떠안은 것이다. 아시아나는 2006년 2500억 원 규모의

대우건설 지분을 매입했다. 2008년에는 CJ대한통운은 지분 매입과 그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1조5430억 원을 지출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아시아나가 희생한 것이다.

아시아나의 재무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2010년에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으며 한 차례 추락한다. 4년 만에 자율협약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채비율과 경영실적은 좋지 않았다. 다만 채권단은 "독자 경영이 가능할

대우건설 지분 매입 등 1.5조 지출 박삼구 전 회장 사업 확장에 희생 2015년 부채비율 1000% 육박

금호-아시아나 분리 등 자구책 박 전 회장·채권단 결정 관건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박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는 또 돈을 토해냈다. 박 회장이 설립한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당시 자금 지원을 한 데 더해, 자회사 금호터미널을 금호산업에 2700억 원에 넘겼다. 당시 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다시 아시아나의 재무상태는 악화했다. 2012년 505.7%였던 부채비율이 2015년에는 1000%에 육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재

무구조 개선을 위한 MOU'를 맺었다. 또한 한 번 추락 것이다.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지만 아시아나의 재무상태는 여전히 나쁘다. 현재 아시아나는 채권단과 MOU 연장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채권단에서는 금호그룹에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를 금호그룹에서 떼어내 더 이상의 현금 유출을 막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시아나가 서있는 추락과 비상의 기로에서 박삼구 전 회장과 채권단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갤럭시J' 없앤다... 중저가 라인업 'A'로 통합



삼성전자가 올 1월 출시한 '갤럭시 A9 프로'.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저가 라인업인 갤럭시J 시리즈를 없애고, 중가 라인업 갤럭시A로 통합한다. 프리미엄 '갤럭시S-갤럭시노트', 중저가 '갤럭시A'로 라인업을 단순화하며 신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갤럭시J를 갤럭시A로 통합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J 시리즈 사용자에게 사랑받던 기능이나 가성비 등은 A 시리즈에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고급 사양의 갤럭시S, 노트 시리즈와 중가형 갤럭시A, 저가형 갤럭시J로 스마트폰 라인업을 구성해왔다. 최근에는 인도 시장 맞춤형 '갤럭시M' 시리즈가 등장했고, 이달 말 출시하는 갤럭시

시리즈 내에서도 프리미엄·중·저가 카테고리 세분화
오늘 태국서 '갤럭시A80' 공개...신홍시장 공략 속도

시 폴드를 시작으로 '폴드' 라인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도 시장 맞춤형 갤럭시M을 제외하고 전 세계 시장 중저가 스마트폰을 갤럭시A로 통합하며 시장 공략에서 집중도를 높여나갈 전략이다. 게다가 최근 갤럭시M이 인기를 얻는 것과 달리 갤럭시J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통합의 이유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J는 이제 갤럭시A (Galaxy J is now Galaxy A)'라는 제목의 프로모션 동영상을 삼성 말레이시

아 법인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 갤럭시A 이벤트를 열었던 곳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 시리즈에서도 준프리미엄과 중가, 저가 등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서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는 중저가 라인업에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A 모델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했다.

2018년 10월 출시한 '갤럭시A7'에 갤럭시

시리즈 최초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고, 12월 '갤럭시A9'에는 세계 최초 후면 쿼드(4개) 카메라를 실었다. 올해 1월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갤럭시A9프로'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태국에서 'A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최초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A80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제품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회전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이 제품은 슬라이딩 방식의 카메라가 도입됐다. 카메라 부분을 위로 올리면 카메라가 회전해 전면, 후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G 5G폰에 '맞춤형 AI' 첫 탑재

더 정확해진 검색·추천 기능
집안 가전기기 원격제어까지
V50 ThinQ 등 최신폰 적용



"내가 깜박해도 LG 5G폰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준다."

LG전자는 19일 선보이는 첫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LG V50 ThinQ 5G에 한 단계 진화된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LG V50 ThinQ 5G와 LG G8 ThinQ에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 사용자가 정확하게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자주 연락하는 전화번호를 추천해 주고, 약속, 스케줄 정보, 만기가 도래한 쿠폰 등을 알아서 찾아 알려준다.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는 검색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조건을 조합해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계속 쌓이는 정보 중 중요도를 따져 매년 따로 분류해 보관하기 어려울 때 편리하다.

예를 들어 지난 크리스마스에 서울 명동 한 커피숍에서 맛있게 먹었던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뒤적이지 않아도 된다.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이라고만 검색하면 해당 사진들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에 있을 때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도 찾아준다. 이 같은 편의 기능들은 정보를 서버로 보내거나 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내부에 정보를 활용한다. 때문에 서버 해킹을 당해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외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제어까지 할 수 있다.

사진을 뒤적이지 않아도 된다.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이라고만 검색하면 해당 사진들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에 있을 때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도 찾아준다. 이 같은 편의 기능들은 정보를 서버로 보내거나 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내부에 정보를 활용한다. 때문에 서버 해킹을 당해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외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제어까지 할 수 있다.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 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韓 해고 비용 OECD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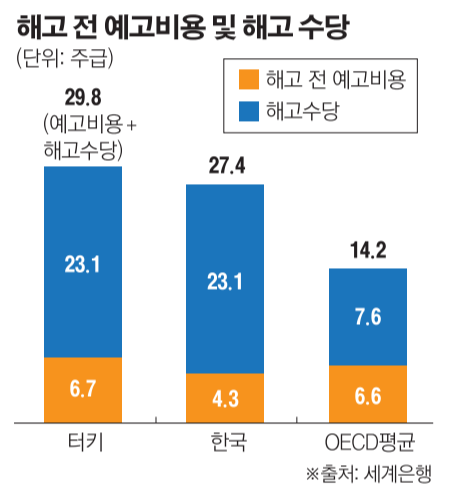
한경연, 1명 해고 때 27.4주치 임금 발생
해고 규제도 많아... "노동 경직성 완화해야"

해고 관련 비용과 규제를 합리화하고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4개)이 OECD 평균(3개)보다 많은 데다가 단체협약과 노조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세계은행(WB)의 'Doing Business 2019'를 이용해 OECD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규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6개국 중 이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는 29.8주 치 임금을 지급하는 터키뿐이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은 모두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낮았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다. 법적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해고 전 예고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나,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로 가장 높았다. 30-50클럽 중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도 해고수당이 11.6주치 임금이므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



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은 법적 해고수당이 없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이 모두 허용하고 있다.

OECD 36개국은 이를 포함해 평균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훈련 및 전보배치 의무' '우선 해고순위' 등 평균 3개의 해고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의 4개 조항을 두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해고 규제가 많았다.

변효선 기자 hsbyun@

두산, 8500km 떨어진 굴삭기 원격조종

독일 뮌헨서 인천 굴삭기 조종
5G 기반 원격제어 유럽 첫선

두산인프라코어가 8500km 떨어진 곳에서 굴삭기를 원격 조종하는 데 성공했다.

두산그룹은 8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 2019'에 참가해 전시장의 '5G 원격제어 스테이션(관제센터)'에서 약 8500km 떨어진 한국 인천의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건설기계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인 것이다. 3년마다 열리는 바우마는 굴삭기와 크레인, 도로 장비, 광산 기계 등 제품의 최신 모델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규모 건설기계 전시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중국 상하이 건설기계 전시회에서 국가 간 880km 원격제어를 실제 장비로 시연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LG유플러스의 저지연 영상전송 장치를 이용해 5G 통신 기반 건설기계 원격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굴삭기에 부착한 센서로 작업 현장의 넓이와 깊이 정보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3D 머신 가이드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였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건설기계를 원격 모니터링하는 텔레메틱스 서비스 '두산커넥트',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두산케어'도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발표된 유럽 신규 배기규제(미세물질 배출 40% 감축)에 맞춘 굴삭기와 휠로더 등도 대거 선보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 SW아카데미 참가 모집

삼성의 교육분야 사회공헌 활동인 'SSAFY(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삼성 스마트스쿨'이 지원자와 참가 기관·단체를 각각 모집한다.

삼성전자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SSAFY 2기 지원자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미취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적성 진단과 인터뷰 등을 거쳐 6월 최종 합격자 500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 소통하며 수업하는 참여형 교육인 '스마트스쿨'에 참가할 기관·단체를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대상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전국의 학교, 병원,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업 등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예병태 쌍용차 사장 첫 행보는 '소통'

취임식 후 현장 찾아 직원 격려

예병태(사진) 쌍용자동차 신임 사장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택한 공식 일정은 '직원들과의 스킨십'이다.

쌍용자동차는 9일 예 사장이 열린 경영 및 스킨십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일에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곧바로 생산현장을 찾아 현장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음 날부터 팀장급 대상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과·차장급, 현장감독자 등 직급별 CEO 간담회를 실시했다.

예 사장은 직급별로 임직원들을 만나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고민들을 듣고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경영철학을 공유했다. 특히 소통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 누구보다 리더인 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 사장은 창원공장 직원들은 물론, 올해 신규 입사자들과도 직접 만나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예 사장은 "티볼리를 통해 우리의 제품 라인업과 기업 이미지가 변화하기 시작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아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던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육아의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도록
지역의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구하기가 짐이 아닌 힘이 되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통해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1호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각 지역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지분 늘리는 KCGI... '경영권 분쟁' 예고

올들어 160만주 사들이며 지분을 '10.8%→13.47%' 확대
총수일가 상속세 문제 지분 희석 우려... 경영권 도전 기회

최근 들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2대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 펀드)의 지분 확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시점과 맞물려 지분구조 변동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올 들어서만 160만 주가 넘는 한진칼 주식을 사들였다. 이 기간 주식수는 무려 26%가량 늘었으며, 지난해 말만 해도 10.8%였던 지분율은 현재 13.47%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차익 실현을 위한 단순한 움직임으로 유연하게 시점이 맞물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지분 확대라는 분석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KCGI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이며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했지만, 지난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식 보유

기간 6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총장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조 회장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세 문제로 총수일가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 KCGI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KCGI 입장에서는 어수선한 한진그룹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주총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대주주의 지분을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회장 가족들이 막대한 상속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 원으로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무려 1727억 원이다.

계다가 조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내년 주총 표 대결에 따른 경영권 분쟁이 올해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조 회장 보유 지분을 가족들이 상속해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을 제외한 한진, 정석기업, 토파스 여행정보, 대한항공 지분매각을 통해 약 750억 원, 한진이 보유한 동대구 터미널, 부산 법일동 부지 등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도 13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재선임을 반대했던 한진칼의 3대 주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주총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6.64%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글로벌 네트워크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면서 "한국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 회장이 생전에 쌓아놓은 항공인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전자는 9~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9'에 참가, 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전자 모델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9'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시관에 설치된 '가든 키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밀라노에 간 삼성·LG '프리미엄 가전' 대격돌

'디자인 위크 2019' 참가
빌트인 본고장에 도전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빌트인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9~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9(Milano Design Week 2019)'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가구·전자·IT·자동차·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양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브레라 구역에 나란히 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4시간 주방'이라는 주제로 1587㎡(약 400평) 규모의 전시관을 조성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감성을 반영해 아침·점심·저녁을 주제로 꾸몄다.

'아침의 방'은 실버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가전 패키지와 곡물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활용해 아침의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점심의 방'에는 스마트 키친 패키지를 전시함으로써

활기찬 낮 시간의 주방을 표현했고, '저녁의 방'에서는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가전 패키지와 설당을 활용한 디자인 오브제로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주방 모습을 제안했다.

LG전자는 대형 건물 1층 전체를 활용해 전시관을 마련했다. '요리에 충실하다'를 주제로 꾸민 전시관에는 쿡탑, 오븐, 와인셀러, 프렌치도어 및 칼럼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초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업이 전시된다.

특히 2월 미국에서 열린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19에서 주방 부문 최고상을 받은 48인치 듀얼 퓨얼 프로레인지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48인치 듀얼 퓨얼 프로레인지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오븐 기능이 적용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토르토나 지역에서 '담대하라, 마음으로 교감하라(Be Bold. Resonate with Soul)'라는 슬로건을 내건 별도 디자인 전시관을 공개, 관람객들이 오감을 통해 삼성의 디자인 철학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LG전자도 같은 지역에 190㎡(약 57평) 규모 2층 건물 전체를 돌돌 말리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R 등 LG 시그니처 제품으로 꾸민 전시관을 준비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MASERATI COLLEC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한화시스템 '생산성경영' 업계 최고 레벨 획득

한화시스템(대표 장시권)이 올해 전면 개정을 통해 최신 기준이 적용된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심사를 받은 결과, 업계 최고 수준인 '레벨(Level) 7+'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PMS 인증은 2005년 11월 이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해온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혁신 활동 지원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반영해 말씀·볼드리지 등 글로벌 선진 경영모델 기반으로 인증 규격이 개정됐다.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까다로운 현장 실사도 추가됐다.

레벨 7+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한화시스템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심사를 받아오며 등급을 유지해왔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올해 심사에서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며, 업계 최상의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왼쪽)가 8일 서울 사업장에서 한성훈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전략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생산성경영시스템(PMS) 레벨 7+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사진제공 한화시스템

임증하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심사 7개 항목 중 △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레벨 8을 받으며, 세계 선진 기업과 견줄 만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변효선 기자 hsbun@

“알코올·니코틴 중독 체크하는 뇌파측정기 개발”

인터뷰

김석민 메딕션 대표

“알코올, 흡연 등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중독자가 아닐까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독자들은 자신을 과신하며 환자 수준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엔 자신의 중독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독 진단 및 치료 전문기업 메딕션의 김석민 대표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서 중독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인 뇌파측정기를 개발했고 양산 단계”라며 일상적 중독 측정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게임, 알코올, 흡연 등에 중독되기 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학회와 최종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의료기기 심사 과정도 밟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설립된 메딕션은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가상현실(VR)을 결합해 중독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한 중독 진단 및 치료 솔루션 전문회사다. 보통 정신과에서 중독 진단을 할 때

하반기 상용화 목표 임상 진행 생체신호 분석기술과 VR 결합 중독 진단·치료 솔루션 개발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제공

거치는 설문조사 대신 생체신호를 분석해 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메딕션 기술의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술 마시는 VR 화면을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보여주고 환자의 흥분 정도로 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식이다.

치료 방법도 독특하다.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중 동이 들 때 구토를 유발하는 VR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식의 ‘혐오치료’를 적용한다.

김 대표는 “약물 치료가 중독을 억누르는 수준이라면 혐오 치료는 환자가 중독



김석민 메딕션 대표가 회사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물질에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원리”라며 “부작용 및 재발률도 낮고 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SCI 논문 3편, 임상 800여 건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메딕션식 치료법’의 효능은 정부가 먼저 알아봤다.

회사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에 쓰이는 VR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

다. 또 작년 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VR 기반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을 맺었다.

김 대표는 “법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거절 훈련, 교통사고 피해 경험, 보복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메딕션은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사업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 방향이었던 진단 및 치료에서 예방으로 범주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김 대표는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술루

선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파측정기는 헤드폰처럼 머리에 쓰고 휴대전화로 기록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메딕션은 뇌파측정기가 기업에서 신제품 등을 내뱉을 때 소비자의 생체신호를 체크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문조사보다 제품의 선호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뇌파기를 시장에 내놓고 수요처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할 것”이라며 “작년에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SNS를 확인하느라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현재 적당한 치료 솔루션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레미콘 기사 “생존권 보장” 호소… 삼표 뒷짐만

삼표 풍납공장 이전 결정에 기사들 “보상 협의권” 요구 송파구청 “삼표 측과 얘기하라” 삼표 측 “대체부지 해결부터”



삼표풍납 레미콘 운송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 2일 송파구와 삼표산업의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 보상협의회’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비대위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제공 삼표 풍납 레미콘 공장 비대위

서울 송파구 소재 삼표 레미콘 풍납공장 이전을 두고 해당 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표의 대체 부지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갑(고용주)인 삼표를 상대로는 이렇다 할 하소연을 못하는 대신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보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송업자들은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삼표 풍납 레미콘 운송협동조합 산하의 비상대책위를 꾸려 차주 생존권 보장 및 이전 부지 마련, 보상 협의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는 “보상과 대체 부지 등의 책임은 레미콘 운송자와 계약한 삼표 측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 풍납 레미콘 비대위 측은 삼표산업 소속 직원이 아닌 개별 사업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인 삼표 관계자와 같은 지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레미콘 비대위원들은 2일 송파구와 삼표 양측이 열기로 한 첫 번째 보상 협의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송파구 측은 현행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레미콘 기사에게 보상 협의권을 줄 수 없고, 대체 부지 역시 보상받은 삼표 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에 관한 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상으로, 삼표 직원이 아닌 레미콘 운수업자는 관계인이 아니어서 협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레미콘 사업자에 대한 보상과 대체 부지 이전 모두 보상을 받는 삼표 측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그간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

를 사업 인고고시 효력 만료 전인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삼표 풍납 레미콘 공장 부지에서 토성 관련 성벽 등 유구들이 대거 발견돼 대법원이 2월 말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 풍납 레미콘 공장 수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풍납 토성은 1925년 대흥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알려졌고, 1997년 발굴조사 당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견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다.

삼표 측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 레미콘 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 원을 받아 공장 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지만 이후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하면서 ‘알박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송파구는 2016년 풍납 레미콘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삼표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에 돌입, 3년 만에 대법원이 송파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장 이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레미콘 운송 기사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역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대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공영홈쇼핑 ‘상품개발 추진단’ 발족

공영홈쇼핑이 공적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및 농어민들의 판로 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홈쇼핑 입점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성된 전담 조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판로 지원을 장려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터전 마련을 독려,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이 최종 목표다.

추진단은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상품 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원은 상품기획자(MD) 외에도 다양한 파트에서 업무 경력 10~20년에 이르는 중진 간부급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조직의 운영은 상품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영업본부장이 추진단장직을 겸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규제혁신토론 열린 날 16명 형사 입건 비의료인 문신시술 불법오명 벗겨달라”

문신사 36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필탄원서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 3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신 시술합법화를 요구하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된 현행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 36명이 쓴 이 탄원서는 72장으로 돼 있으며 이미지 스캔을 한 파일이 지난 달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됐다.

이들이 탄원서를 쓴 배경은 지난달 7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이 형사입건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 업소 30개소를 수사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된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의사 면허증이 있는 문신사만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의료인 자격을 가진 문신사는 10명 남짓이다.

공교롭게도 16명이 형사입건된 이날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연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뷰티 스타트업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는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불법 오명을 벗겨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타투이스트들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마치 합법화라도 된 것처럼 기뻐했다”며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같은 날 같



은 시간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단속이 진행돼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대거 형사입건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쓴 36명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으로 대부분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데도 불법 오명을 씌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 또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당장 합법화가 어렵다면 ‘단속 유예’ 결정이라도 내려 달라고 밝혔다.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에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

한국타투협회는 눈썹 반영구와 몸에 하는 타투를 합해 국내 문신 시장 규모를 연간 2조 원으로 추산한다. 국내 몸 문신 이용자는 300만 명, 눈썹 등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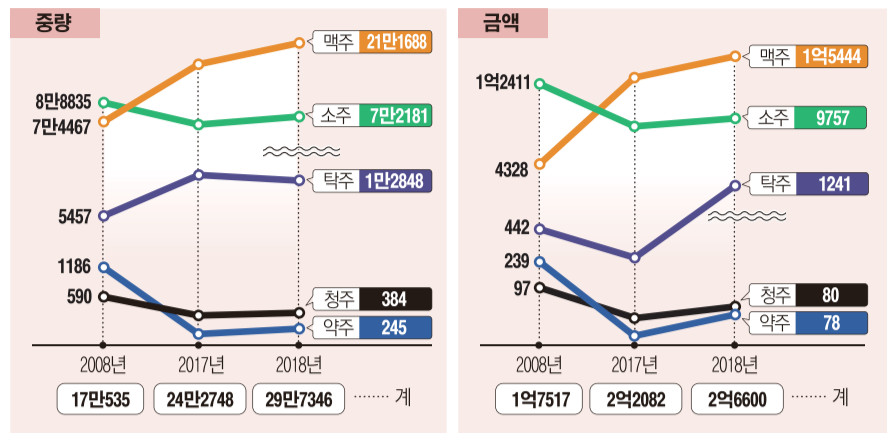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장은 “문신업 종사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이라며 “지하 시장을 양성화해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맛없다’던 국산 맥주의 반전...주류 수출 ‘일등공신’

작년 주류 수출 29.7만t 중 맥주 21.2만t...71% 넘어
2009년 소주 수출 제친 후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

주종별 주류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출처 : 관세청



영국 기자로부터 “맛없다”는 혹평을 받았던 한국 맥주의 위상이 달라졌다. 한국 맥주가 지난 10년간 주류 수출을 견인한 대표 주종으로 부상한 것이다.

9일 관세청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출량은 29만7345톤으로 10년 전인 2008년 대비 74.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는 수출 주류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컸다. 지난해 맥주 수출은 21만1688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맥주가 수출 대표 주종으로 부상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2008년만 해도 맥주는 소주보다 수출 물량이 낮은 주류였다. 맥주 수출량은 2009년 처음 소주를 제친 이래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소주 수출량의 3배 가까운 양을 해외에 팔아치웠다.

맥주의 수출 견인에는 주류업계의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 주류업계는 수출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고 수출용 한정판 등을 선보이며 현지 입맛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피츠 육성

재 패키지’ 한정판을 중화권에만 선보였고 오비맥주의 홍콩 수출 전용 브랜드 ‘블루 걸’은 현지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자리를 11년째 지키고 있다. 하이트진로도 수출 전용 맥주인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을 지난해 뉴질랜드와 두바이에서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8%로 기존 맥주보다 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맥주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33.8% 신장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만 톤 고지를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소주(1.57%)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압도하는 수준이다.

맥주에 이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막걸리(탁주)도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막걸리 역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만2847톤을 수출했다. 막걸리 수출 증가는 유통기한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막걸리는 10일 내

외의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수출에 제약이 많았지만 최근 20일에서 한 달가량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며 가파른 수출 상승곡선을 그렸다. 더욱이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안병학 박사팀이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최대 100일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제조사에 기술 이전키로 함에 따라 막걸리 수출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난다면 올해 맥주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출국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중심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류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2억6600만 달러(3039억 원)였다. 이 중 맥주 수출액은 1억5444만 달러(1765억 원)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9호선 ‘CU 편의점’ 25곳 GS25로 간판 바뀐다

1단계 구간 새 사업자로
최장 10년간 임대 계약

선 1단계 구간에 위치한 편의점 25곳에 대한 운영을 5년간 맡는다.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임대 총면적은 1643.51㎡이며, 가장 큰 매장은 김포공항역점(110.71㎡)이다.

편의점 GS25가 지하철 9호선 1단계 편의점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CU(씨유)가 운영 중인 9호선 1단계 편의점 25곳이 GS25로 바뀐다.

9일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9호선 1단계 편의점 25곳의 새로운 사업자로 낙찰됐다. 이로 인해 GS25는 이미 운영 중인 2·3단계 구간 12곳을 포함해 9호선 전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CU는 7월 말까지 매장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지하철 9호선 편의점은 이르면 9월부터 GS25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전국 지하철로 범위를 넓히면 GS25는 서울 지하철 6, 7, 8, 9호선 91개와 부산 지하철 등에서 총 17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세븐일레븐(47개)이 맡고 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최근까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사업권을 갖고 있었지만,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게 됐다.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CU를 비롯해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새롭게 사업권을 따낸 GS25는 9호

입찰을 따낸 업체의 경우 직영 혹은 위탁 운영만 가능하지만 GS25는 직영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9호선의 경우 편의점이 개찰구 옆에 위치하고, 여의도와 신논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4단계 추가 연장이 추진되는 데다, 열차 증량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철역 편의점의 경우 임대료에 비해 매출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시간 운영되지만 지하철 운영 종료에 따라 실제 영업시간에 대한 제약도 따른다. 실제로 세븐일레븐 광화문역점(41.7㎡)의 월 임대료는 2534만원, GS25 건대입구역점(37㎡)의 월 임대료는 111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GS25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점은 운영시간과 주력 고객 연령층 등이 특수한 매장”이라며 “지하철 내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해 쌓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점포로 최대 효율을 내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백화점 ‘타이맥스’ 팝업스토어 오픈

롯데백화점이 잠실점 에비뉴에서 14일까지 165년 전통의 미국 헤리티지 시계 브랜드 ‘타이맥스(TIMEX)’의 팝업스토어를 열고 9일 밝혔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표 상품인 ‘MK1(11만~21만 원)’과 ‘워켄더(9만~19만 원)’ 라인을 비롯해 8가지 상품 라인의 다양한 모델을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中가전, 가성비甲” 직구거래 급증

이베이코리아 1분기 거래량 37%↑
샤오미 로봇 청소기 등 실속형 인기

올해 중국 직구 거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를 좇아 휴대전화, 계절가전 등 고가 품목을 중국 직구로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올해 1분기 중국 직구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의 해외직구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3%로 크게 늘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과거 ‘불신’에서 ‘가성비’로 바뀌면서 비교적 고가 품목인 음향기기, 휴대전화, 계절가전, 생활·미용 가전을 중국 직구로 구매하는 소

비자가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향기기의 판매량이 1년 사이 5배(406%) 늘었다. 특히,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불티나게 팔려 음향기기 카테고리 매출액을 높였고, 저가형 무선 이어폰 QCY는 판매 건수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스마트폰의 판매는 64% 증가했고,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외에 샤오미의 포코폰·홍미노트까지 골고루 인기를 끌었다. 포코폰은 샤오미가 지원하는 서브 브랜드로, 성능은 강화하면서 가격은 대폭 낮춘 모델이다.

계절가전 판매 신장률은 63%에 그쳤지만 총판매액으로는 가장 높았다. 행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샤오미 공기청정기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에어 2’의 직구 평균가는 12만원 정도로 국내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19만 원 안팎에 비해 50%가량 저렴하다.

16% 성장한 생활·미용 가전에서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가 잘 팔렸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중국 해외직구의 성장요인으로 올해부터 중국까지 확대 적용한 ‘빠른 직구’ 서비스를 꼽았다. 빠른 직구 서비스는 제품 발송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발송이 시작되면 알림톡으로 트래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송사 각지대였던 중국 직구의 단점을 해소한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 해외직구팀 구건희 매니저는 “중국 직구는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가전제품 위주로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매년 줄여나가고 있다”며 “해외직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송, 결제, 환급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 지속해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중소병원, ‘협동조합’으로 뭉친다

공동출자·공동운영 경영난 타개
2014년 비노기과협동조합 시작
성형외과의사회 등 설립 줄이어

의료 협동조합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비노기과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성형외과의사회도 협동조합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품 공동구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별·과별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여러 기업(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결성한 조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유지하는 ‘원가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12월 설립돼 병원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비노기과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당시 비노기과의원 970여 곳 중 400여 곳이 가입했으며 2015년도 수익은 1억 3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2016년에는 출자금 배당 총액이 313만 5000원, 실적 배당금은 2635만 원(481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가 드러나면서 의사회 협동조합 설립이 뒤따르고 있다.

2016년 설립된 ‘메디칼의사협동조합’도 현재 50~60명 조합원을 모집한 가운데 실



질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이다.

성형외과의사회도 성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1차 10만 원을 납입하는 형태로 최근 협동조합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협동조합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내에는 성북구와 중랑구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다만, 의료계 전반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비노기과의사회처럼 공동 이익 추구라는 기본 취지를 지켜간다면 좋은 선례로 남겠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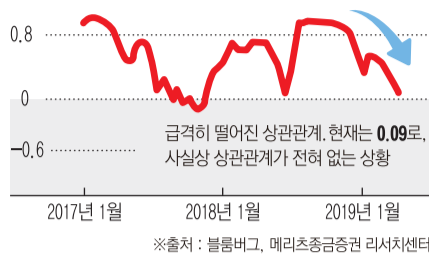
또 다른 조합 운영진은 “의료기기 기업들 간 가격경쟁과 조합원들의 공동구매로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반면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 운영 목적이 부실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증시 발목 잡는 '원화 약세'

반도체 경기 둔화-배당금 송금 영향
글로벌 증시 대비 상승폭 낮아
8일 원달러 환율 1144.70원
2017년 10월 이후 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관계
(단위: 원화-위안화)



원화 약세 흐름이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화와 신흥국 통화 강세인 반면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배당 송금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 이후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지난해 말까지 상관관계가 '1'에 근접했지만 올 2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 '0'에 가까워졌다.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중국에 비해

한국 증시의 상승률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기준 상하이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30%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8%대에 그치며 글로벌 증시 중 하위권이다.

하인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주가 흐름은 상승이라는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폭은 차이가 크다"며 "이는 작년과 달라진 환율 흐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140원을 상향 돌파한 1144.70원을 기록, 2017년 10월 이후 고점을 경신했다. 이날도 1142.50원으

로 마감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취약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3~4월의 외국인 배당금 송금 등이 꼽힌다.

이미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9분기 만에 영업이익 2조 원 하회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국내의 주요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시기가 3월과 4월에 집중되는데, 이때는 배당금에 대한 송금이 달러 수요로 몰린다.

전문가들은 4월 중순께 원화 약세가 완

화돼야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인환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자들 배당금 지급이 일단락되는 4월 중순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낮아진 원화 가치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기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송금은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때부터 달러 수요가 완화될 것"이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완화와 미·중 무역협상의 원만한 합의 등이 예상돼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이내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미래에셋대우, 작년 외환거래 손실 1兆 넘어

국내 증시 침체에 외환 거래 확대
이익도 59% 늘어 차익 1108억

외환거래 손실 현황
(단위: 억 원)

MIRAE ASSET

	2017년	2018년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7,504	10,705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6,209	6,693
한국투자증권	2,465	4,808
삼성증권(주)	4,055	3,429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513	3,419
NH투자증권	5,802	2,527
KB증권주식회사	3,927	2,190
키움증권(주)	542	2,028
대신증권주식회사	1,131	993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2,196	869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외환거래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증권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9일 국내 10대 증권사의 외환거래 손실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외환거래 손실액은 1조705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66% 증가했다.

그뒤를 메리츠증권(6692억6700만 원)과 한국투자증권(4807억5400만 원)이 이었다. 지난해는 국내 증시의 침체 속에 증권사들이 해외 외환시장으로 눈을 돌리던 때였다.

증권사들은 최근 외환 거래 활동을 넓히고 있다. 과거 해외 주식상품 거래가 주를 이뤘다면 이젠 환 거래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변화에 따라 증권사들도 1월부터 해외 송금업무를 시작했다.

외환동시결제(CLS) 가입에 앞장서며 외환거래를 늘리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2018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LS 결제 규모는 654억 달러(약 74조7139억 원)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경우 기가입자인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합세하면서 현재 총 6개사가 CLS를 통해 거래 중이다. CLS

는 2014년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외환분야 여건 변화를 감안해 증권사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사들을 참여 가능기관으로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외환 거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 증가의 아쉬움은 더 크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외환거래 이익 역시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외환거래 손실이 42.66% 늘어나는 동안 이익 역시 59.14% 증가했다. 그럼에도 손실과 이익의 차이가 1108억4850만 원으로 집계, 1556억5003만 원을 기록한 2017년보다 낮아져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 거래 손익의 경우 전자 사업 부문이 모두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개별 요인을 세밀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업계의 해외 주식 중개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난 점이(손실이 늘어난)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전자증권 시대' 미리 준비하세요

예탁원, 비상장주 6월 17일까지 전자등록 신청

전자증권 시대가 9월 16일 개막되면서, 기존 증권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형태로 일괄 전환되거나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 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의 정관과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후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 참가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

되는 만큼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관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고·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제기 경창산업, 재무구조 개선 '빨간불'

감사의견 '적정' 한숨 돌렸지만
작년 266억 순손실에 유동부채 ↑
외부차입 관련 이자비용 더해져
부채비율 290%로 40%p 급증

경창산업 실적 및 유동자산·부채 추이
(단위: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5528	5990	6458	5501	5965
영업이익	284	250	293	-27	165
순이익	249	135	98	-321	-266
유동부채	2,504	2,790	3,216	3,231	2,950
유동자산	1,643	1,875	2,000	1,727	1,760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던 경창산업이 감사의견 '적정'
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대규
모 적자와 과도한 유동부채로 계속기업으
로서의 존속 불확실성이 드러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
창산업은 전날 감사의견 '적정'을 담은 감
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존속기업 감사인으로부터 전
기말 재무제표(기초잔액)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 절차가 미완료됐
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경창산업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여
부'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 지
난해 연결기준 266억 원의 순손실을 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하
면서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경창산업의 실적 하락과 재무건전성 약
화는 전방산업의 부진과 자동차 부품산업
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창산
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오토 트랜스
미션 부품과 케이블, 레버류를 주로 생산
한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그룹으로 매출

비중은 97%에 달한다. 2016년까지 연결
매출 6458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구
가하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현대차그룹 부
진에 매출은 5000억 원대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의 플랫폼 통합도 일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 원가
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경창산업 같은 부품
업체에는 대대적 변화를 요구한다.

경창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4~5% 수
준을 보이다 2%대로 떨어졌다. 또 외부차
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관계기업 투자손실
이 더해져 수백억 원대 순손실이 발생했
고, 그 영향으로 자본총계가 줄어 부채비
율은 전년 250%에서 290%로 40%포인트
급증했다. 재무상태의 경우 장 단기 차입금
이 전년 28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000억
원대로 늘었다. 자산의 70%가량이 기계장
치와 공장 등의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실적 회
복이 더더 차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
다. 조남호 기자 spdran@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 창작 애니 라이선스 사업 주력

기업탐방

대원미디어



서울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팝콘D스퀘어.
사진제공 대원미디어

7일 이투데이가 방문한 서울 용산
팝콘D스퀘어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
릭터로 가득한 그야말로 '테마파크'였
다. 한쪽에서는 어린이 관객들이 들어
찬 가족 뮤지컬 '프랜즈'가 공연 중이
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5월 개막을 앞
둔 짱구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1973년에 설립된 대원미디어는 애
니메이션 콘텐츠 기업으로,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 국
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은 물론 '도
라에몽', '원피스', '짱구는 못 말려'
등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팝
콘D스퀘어 오픈에 맞춰서 본사도 함
께 옮겼다. 3300㎡(1000평) 규모
의 팝콘D스퀘어는 대원미디어가 보
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라이선스 관
련 사업을 집대성해놓은 실내 복합문

화공간이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인 김기남 이사는 "(팝콘D스퀘어
에) 낮에 주로 어린이 등 젊은 연령대
가 찾는다면, 퇴근 이후 저녁엔 30·40
대가 많이 찾는다"면서 "유명 애니메
이션의 팬들과 소통하는 장으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라이
선스 사업에 주력할 계획으로, 타 업종
과의 라이선스 관련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김 이사는 "최근 SPA 의류 브랜
드인 스파오가 짱구 라이선스를 갖고
의류를 제작했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서드래곤볼Z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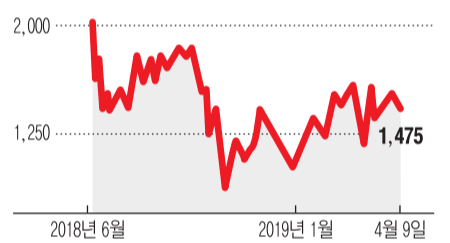
"대장암 등 체외진단 기기 연내 상용화"

기업 주식 탐방자

주담과 Q&A

우리기술 추가 추이

(단위: 원)



우리기술

원전제어기술 전문회사 우리기술이 공격
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진출 대상은 차세
대 항체 신약 개발사업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분자진단 사업이다.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체 신약 개발
은 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3대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는
글로벌 시험수탁기업(CRO)인 찰스리버
사와 비임상 실험에 돌입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 개발도 순항 중이다.

-신사업으로 바이오를 선택했다.

"당사의 핵심경쟁력은 '제어(Control)'
기술력이다. '계측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11월 바이
오벤처 MD헬스케어(MDH)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몸속
미생물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패혈증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
러 중장기 성장전략의 목적으로 차세대 항

암치료제 개발, 분자진단, 황반변성 항체
치료제 등 바이오 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 추진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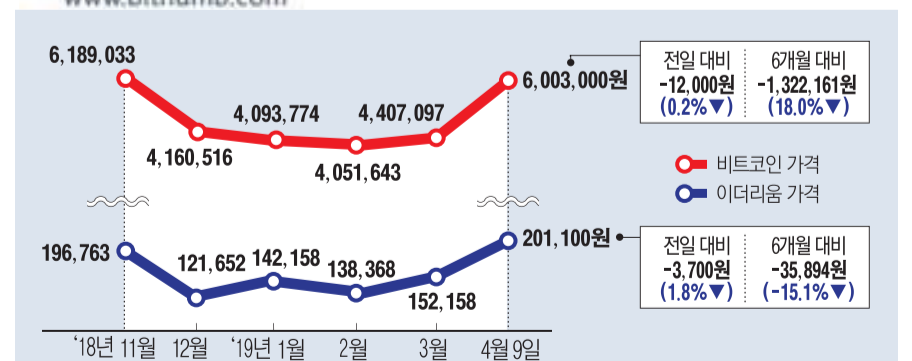
"바이오 사업은 오랜 시간과 자금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당사는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할 집중할 계획이다.
패혈증, 대장암 등 체외진단 기기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추진 중이다. 빠
르면 연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다. 암, 황반변성 등 다양한 항체 치료제
개발은 최종적으로 해외 빅파마에 관련 기
술에 대한 조기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 kim@

이 기사는 Money10 4월 9일 오전 10
시 4분에 게재됐습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4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40,000	-12,500 (0.9%▼)	모네로	79,150	-2,750 (0.9%▼)
리플	405	-5 (0.9%▼)	비트코인골드	22,730	-1,310 (0.9%▼)
라이트코인	98,300	-3,600 (3.6%▼)	이더리움 클래식	7,960	-440 (0.9%▼)
대시	154,500	-2,400 (0.9%▼)	퀀텀	4,013	-138 (0.9%▼)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프랜차이즈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액금액별 자동,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문의센터 1588-8245



구도심에 짓는 새 아파트, 잘~나갑니다

지난해 서울 청약경쟁률 톱10 노후단지 밀집지역서 '짜싹이' 기반시설 좋고 대기 수요 많아

입주 10년 차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의 일부 구도심 지역들이 청약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덕분에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인 물량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노후도가 높은 구도심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들에 트렌디한 설계와 첨단 시스템 등이 적용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단지 공급이 뜸했던 만큼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돼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 순위를 살펴보면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된 단지의 성적이 두드러진다. SK건설이 12월 공급한 'DMC SK뷰'는 평균 91.62대 1로 지난해 서울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수색동은 지금까지 공급된 2223가구의 아파트 모두 입주 10년이 넘었을 만큼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곳이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당산동5가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79.9:1),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길파크자이' (79.63:1), 강서구

서울 신규분양단지 청약 경쟁률 순위 '민간 분양 기준, 2018년 기준'

순위	단지명	청약 경쟁률	주택 노후도
1	DMC SK뷰	91.62	100%
2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79.9	100%
3	신길파크자이	79.63	74%
4	힐스테이트 녹번역	59.05	36%
5	신마곡 벽산블루밍 메트로	54.75	99%
6	e편한세상 문래	31.61	100%
7	영등포 중흥S-클래스	24.64	100%
8	디에이치 라클라스	23.94	78%
9	용마산역 쌍용에가더클라우드	22.48	96%
10	논현PARK	18.32	90%

*출처: 부동산114, 주택노후도=전체 공급량 대비 입주 10년차 이상의 단지 비율

방화동의 '신마곡 벽산블루밍 메트로' (54.75:1)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단지

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분위기는 희소성과 상품 완성도가 높은 새 아파트의 가치에 많은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에서도 노후단지 밀집지역 내 새 아파트의 인기는 잘 드러난다. 입주 10년 차 이상 단지 비율이 전체의 86%에 달하는 동작구 사당동에서는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 로이파크'가 입주와 동시에 대장주로 자리잡았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59㎡타입 시세는 약 9억1000만원 선으로 사당동의 전용 60㎡ 이하 타입 평균 매매가 5억8000여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 수색동에서는 비교적 가장 최근 입주한 'DMC자이 1차'의 대형 타입들 역시 약 8억~9억 원대의 시세를 기록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행복주택 4740호 오늘부터 청약접수

LH, 수도권 7곳 등 11개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 전국 11개 단지, 총 47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하남감일 등 수도권 7곳 3202호와 청주동남 등 지방권 4곳 1538호이다. 청약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만19~39세 청년, 사회초년생,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 파주법원(250호), 평택 고덕 Ca1, Ca2(594호), 평택북부 B12(326호), 영암용양(326호)지구는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우선 공급 물량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하남감일(672호), 인천서장2(950호), 화성남양뉴타운(410호), 청주동남(998호), 아산배방2(250호)의 청년·신혼부부배정 물량의 경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주거안정 지원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이다.

당첨 결과는 7월 중 발표한다. 입주는 올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가구수,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LH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총 53개 단지 2만1408호다.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향후 계획된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무순위청약' 흥행 사전 지표 되나

청약통장 없이 사전접수 가능 예약 전으로 시장 관심도 가늠

추가 분양을 대체해 도입된 '무순위 청약'이 분양 흥행을 판가름하는 사전 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올해 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무순위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운영된다.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추가 분양을 하던 기존 방식을 바꾼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사전접수는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사전 접수를, 사후접수는 계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

하면 실시하는 추가 접수를 각각 말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근 일부 사업자가 사전접수에 나서면서 신청건으로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 공급된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은 지난달 11·12일에 사전접수 청약을 했다. 사전접수는 총 213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물량이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서 사전접수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김해 삼계두곡한라비발디 센텀시티'도 사전접수를 받았다. 일부 공급 물량이 2순위(8일 청약)도 미달했기 때문에 사전접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정비구역 해제될라... 속도 내는 재개발 사업지

2012년 1월 말 이전 지정된 곳 일몰제 1년여 앞두고 사업 분주

서울 재개발 사업지들이 조합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돈암6 재개발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조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암6구역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원 4만705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889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구역이다.

돈암6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2017년 10월부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조합 설립 조건을 맞추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며 "올해 6월 말 조합창립총

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림1 재개발 구역도 지난달 28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2005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현재 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림뉴타운의 72%를 차지하는 신림1구역은 약 23만㎡ 부지에 27개 동, 2886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7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39개 동, 3857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수2지구는 나머지 전략구역 모두 조합을 설립한 가운데 동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 추진위원장 선출에 실패한 뒤, 일몰 위기가 커지자 조합부터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여름까지는 75%를 달성해 조합설립 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뜰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이더리움 재단,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유는

확장성 향상 위해 채굴방식 대전환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개발자가 지난주 방한해 '이더리움 2.0' 알리기에 분주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와 이더리움 2.0의 구현 모습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더리움 2.0 주요 스펙	
목표 속도	1만4000건 초당 처리 속도
채굴방식	작업증명(POW)에서 점진적으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 추진
채굴 준비 사항	- 최소 320더(Ether) 예치금 - 노트북 수준의 컴퓨터 - 빠른 네트워크 연결 - 예치 이더가 많을수록 고성능 컴퓨터 필요
참여자 보상	네트워크 참여자들 연간 2~6% 수익률(예상)

◇'채굴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 이더리움 2.0은 이더리움 재단이 출범 때부터 마지막 개발 단계로 정한 프로젝트명 '세레니티(Serenity-평온)'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시작부터 고성능 컴퓨터 장비로 채굴을 하는 '작업증명(POW)'에서 일반 개인용 컴퓨터(PC) 성능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기존 방식이 너무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과 속도 향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채굴 방식인 '지분증명(POW)'이 구현될 수 있을지 연구가 끝나지 않았습다. 그래서 출시 초기엔 작업증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에 기술 개발을 끝낸 후 서서히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죠.

최근 이더리움 재단은 지분증명 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채굴방식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되는 것이 '비콘(Beacon-신호기) 체인'입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 2.0 구조의 핵심은 비콘 체인"이라며 "블록 합의가 이뤄지는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이더리움 1.0)에서 이더리움 2.0으로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최근 이더리움 재단은 비콘 체인을 시험 운용하는 테스트넷(Testnet)'을 가동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비콘 체인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도 채굴할 수 있을까 = 이더리움이 지분

고성능 컴퓨터로 채굴 '작업증명' 방식 전기 소모 많고 속도 느려 한계
대형 채굴자에 이익 편중 문제도
보다 많은 사람 네트워크 참여 위해 PC로 운용 가능한 '지분증명' 구현
탈중앙화·대중화 목표 진화 가속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선 고성능 장비를 먼저 사야 하고, 막대한 전기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뿐더러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위험이 너무 크죠. 더 큰 문제는 채굴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일부 대형 채굴자들에게 이익이 편중된다는 것이죠.

반면 이더리움 2.0의 '지분증명'에선 채굴에 쓸 이더리움을 담보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채굴 최소 요구치는 32이더(Ether)로 현재 시세로 660만 원(9일 오전 기준)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유지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죠.

부테린은 최소 32이더를 예치한 참여자들로

네트워크 보안성 검증단이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성 검증단은 무작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담합이나 대형 참여자의 조작이 무척 어렵다는데요. 검증단으로 활동한 참여자에게 매년 예치한 이더의 2~6%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노트북 수준의 컴퓨터와 빠른 네트워크이고요. 수천 이더(Ether) 이상 예치할 경우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이후는 = 이더리움 2.0은 △0단계(비콘 체인의 도입) △1단계(데이터 저장 분산처리) △2단계(실행 단계의 분산처리) △3단계(개인정보보호 기능, 속도 개선) 등 총 4단계로 다시 나뉘는데요.

부테린은 '이더리움 2.0'의 일차적 목표가 초당 1만4000건의 처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이르면 2년 내에 이더리움 2.0의 골격이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2.0 프로젝트에서의 속도 향상뿐 아니라 플라즈마(Plasma)라는 기술과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속도개선 기술(ZK rollup) 등을 동시에 연구 중이예요. 이 기술들을 모두 사용하는 날에는 이더리움의 속도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테린은 "많은 사람이 확장성(속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년 내로 확장성과 유용성, 필요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블록체인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람 기자 hura@

시장 이모저모

캐나다 법원이 불법 약물 공급업자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는 소식과 미국 몬태나주 미줄라에서 재생 에너지로만 채굴을 허가하는 규제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캐나다, 불법 약물 거래업자 비트코인 압류

캐나다 토론토 법원이 온라인 불법 약물 거래업자의 비트코인 자산 압류를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불법 약물 거래업자가 보유한 14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몰수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약물 거래업자는 지난해 12월 다크웹에서 불법 약물을 공급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압류 판결된 281.41BTC는 다른 활동으로 확보한 자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인 켈리 대법원 판사는 "다크웹 접속에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약물 거래 대금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거래 활동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美 지방 의회, 가상화폐 채굴 규제 도입

미국 몬태나주 미줄라 지방 의회가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규제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줄라 지방위원회는 지역 가상화폐 채굴 규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초안은 규제 목적을 "카운티 거주민의 공공 보건, 안전, 윤리,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채굴장은 용도를 검토, 승인받은 후 공업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환경부 인증 재활용 업체에 전자 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한다.

"이더리움 가격 곧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상승 직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뉴스BTC는 "가상화폐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가격 행동과는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 가상화폐 분석가인 크립토크알레오(CryptoKaleo)는 "이더리움이 거의 항상 큰 가격 상승 움직임으로 뒤따르는 최신 프랙탈 범위(fractal range)의 하단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더리움 가격은 곧 사상 최고치 쪽으로 다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린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01

바르게 닦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시작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략수립 넘어 공동투자도...기업 속성시키는 역할”

스타트업·중견기업 컨설턴트...김태근 빈티지랩 대표

문제 진단·대안 제시 그치지 않고 고객사와 협의 문제 해결 개발자, 빅데이터·마케팅 전문가 함께 디지털 솔루션 제공

“숫자로 된 목표를 장기적으로 세우진 않아요. 매출액 얼마 얼마 이런 목표들이 과정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리죠.”

김태근 빈티지랩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이익만 쫓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좋은 보상을 주기 위한 도구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회사가 필요한 인력들을 알아야 하고, 이익 배분을 할 때도 숫자가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의 얼마 이상은 줘야 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단기 목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빈티지랩은 새로운 형태의 컨설팅 회사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때로는 법률적 지원과 기술을, 때로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사업의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들은 기업의 문제를 진단한 뒤 대안만 제시하고 떠난다. 반면 빈티지랩은 고객 회사와 상의해 법인을 따로 설립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 회사엔 외국계 컨설팅 기업 출신 컨설턴트와 대기업

출신 개발자, 빅데이터 박사, 마케팅 전문가 등이 모여 있다.

김 대표는 “전략, 기획, 개발, 펀딩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만드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적인 약점을 지원하고, 반대인 경우도 도움을 준다”며 “초기 단계에 지분을 투자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빈티지랩이란 이름도 스타트업 육성의 의지를 담아 지었다. 와인 용어 중 빈티지는 ‘속성시킴’의 뜻이다. 와인을 속성시키듯이 기업을 속성시킨다는 것이다. 랩(Lab)은 문자나 페이퍼(서류) 위주의 컨설팅을 떠나 액티브한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중요한 영역이 중견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다. 전통적인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성장한 중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세련된 전략뿐 아니라 실행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태근 빈티지랩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그는 “큰 회사들이 ‘디지털 포메이션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연구하다 DNA(혁신 유전자)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데 결론을 내렸다”며 “디지털 사업 전략만 짜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행까지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올라온 중견 기업들의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고 했다. 미래의 변화에 언제 뒤처질지 몰라 불안해한다는 것.

빈티지랩은 이런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디지털 제반 사

항까지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스타트업을 만들어 공동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그는 “우수한 IT 인재 중 대형 조직의 경직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빈티지랩은 기업과 IT 인재들을 연결하는 가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재직 시절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IT기업의 투자 단계부터 성장까지의 과정을 지켜 보았다”며 “앞으로 나올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면서 변화의 중심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잭 도시 트위터 CEO 지난해 연봉 1600원 4년째 사실상 무보수

트위터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사진)는 지난해 사실상 무보수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시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18년 연봉은 총 1달러40센트(약 1600원)에 불과했다.

도시 CEO의 무보수 행보는 2015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상여금 수당 스톡옵션 등 모든 보수를 거부하며 “이는 트위터의 장기적 가치창출에 대한 나의 헌신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던 도시 CEO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140센트를 수령하자 ‘140’이라는 숫자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블룸버그는 도시 CEO가 연봉을 ‘140센트’로 선택한 의미가 트위터의 과거 글자 수 상한선인 ‘140자’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룸버그는 도시 CEO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의지로 지난해 140센트를 수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광고 인재 등용문’ 제일기획 대학생 공모전 40돌

금상 이상 수상자 입사 지원 때 우대 24일까지 접수...7월초 시상식 개최

제일기획이 올해 40회를 맞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1978년 시작된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지난해 공모전에는 6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약 2500편의 아이디어가 경연을 펼쳤다.

올해 공모전에는 삼성드림클래스, KT 5G, 맥심 카누, 에쓰오일, 마켓컬리 등 제일기획 광고주와 관련한 10개의 과제가 부여됐다. 모집 부문은 영상광고, 인쇄광고,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광고 기획서, 이노베이션 등 총 6개 부문으로, 40회를 기념해 특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부문에서는 기존 광고 매체 외에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



또는 사물을 통한 광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 외 2년제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휴학생 및 군 복무자 포함)으로,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 접수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3단계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등 총 3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초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의 경우 올해부터 금상 이상 수상자 전원에게 제일기획 신입공채 및 인턴 지원 시 전형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송영록 기자 syr@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박공영 우리씨드 대표

년매출 23억 야생화 전문기업

박공영(사진) 농업회사법인 ‘우리씨드’ 대표가 9일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

박 대표는 2013년 우리씨드를 창업해 연(年) 매출 23억 원의 야생화 전문 기업으로 일군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학에서 농업생물학을 전공한 그는 전문성을 살려 야생화 96종을 개발, 품종보호권(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식물 특허)을 얻어냈다. 박 대표가 개발한 야생화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1년에 900만 원의 로열티가 들어온다. 국내 시장에서도 야생화 육종은 연간 300만 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박 대표는 육종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조경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혔다. 특히 녹화담장, 벽면녹화구조물 등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조경 구조물이 우리씨드의 조경 분야 주력 상품이다. 그는 조경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열심이다. 경기도 이천시에 이천그린아카데미를 열고 방문객들에게 도시원예를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식물원에서 다과와 조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열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포스코, 강원 산불 피해지역 재해성금 10억 출연

포스코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재해성금 10억 원을 출연한다.

포스코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억 원은 발화점 중의 한 곳으로 피해가 심한 옥계 지역에 주거대책용으로 지정기탁했다.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은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복귀 지원에 기업시민 포스코가 앞장서야 한다”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도 3억

안유수(사진) 에이스경암 이사장이 강원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3억 원을 기부했다.

안 이사장은 “산불 피해와 생명의 위협에 빠진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맞선 소방관들과 국군 장병들, 일반인들이



지 전 국민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탁했다”며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작은 도움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승진 △제1차관실 서기관 신소영 △제2차관실 기술서기관 허진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합식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조미아 △연구개발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영수 △원자력연구개발과 서기관 김중철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서기관 정지수 △미래인재양성과 서기관 이가영 △융합신산업과 서기관 김수정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서기관 오정택 △소프트웨어정책과 서기관 남영준 △정보보호기획과 기술서기관 하준

부음

▲최규백 씨 별세, 최중태(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순록(한국중부발전(주) 부장) 씨 부친상 = 9일,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033-610-5985
▲정성모 씨 별세, 정진수(단국대 교

홍 △통신정책기획과 기술서기관 이봉호 △전파기반과 서기관 김기제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박길재 △성장동력기획과 기술서기관 윤영기 △성과평가정책과 기술서기관 함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 윤상웅 △중앙전파관리소 기술서기관 정일성

◆조달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 이현호

◆건설경제신문 △주필(상임이사) 유일동 △논설실장 서태원 ◇편집국 △편집국장 권혁용 △부동산부장(부국장) 박노일 △산업1부장 한상준 ◇마케팅국 △기획출판·신사업개발부장(부국장) 신정은

수, 전 LG실트론 전무)·혜진·혜경 씨 부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3010-2261

▲심현경 씨 별세, 심원환(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환우·귀순·경순 씨 부친상, 김광열·신호영 씨 장인상, 우은영·송영희 씨 시부상 = 9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53-620-4647

황철규 고검장, 국제검사協 수장으로 아시아 지역 최초로 IAP 회장 당선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황철규(사진) 부산고검장이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황 고검장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출마했으며 장 프랑수아 프랑수 고검장(유럽 대표), 사티지트 브렐 모리셔스 검찰총장(아프리카 대표)과 경쟁해 2차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최종 당선됐다. 황 고검장은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장효진 기자 js62@

고진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신지에 이후 한국 선수론 5번째

고진영(24·사진)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9일(한국 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7.20점을 획득해, 6.84점의 박성현(26)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했다.



그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선수로는 통산 5번째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 1위가 된 선수는 신지에(31)로, 2010년에 1위에 올랐다. 이후 박인비(31)가 2013년, 유소연(29)과 박성현이 2017년에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자면, 2008년의 위기가 투기적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감독 당국과 정치 세력들이 낳은 결과라면, 최근 상황은 빈부 격차에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을 활용한 선동적 정치 세력들이 초래하는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위기의 강도가 더 클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도 더 묘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 또 다른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의 전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2008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장에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채권금리 역전 현상, 즉 미국 재무부의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낮아진 것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그 시작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거시경제 지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 역시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중국의 수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등 유럽 경제의 동반 침체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가히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제조업에 찬바람을 몰고 왔다는 주장은 과장이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움을 최근의 거시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08년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는 미국의 부실 부동산담보채권(MBS)이 첨단 파생금융 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투기적 금융산업과 결탁한 미국의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와 이를 조장한 정치세력들이 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필두로 전 세계 제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중론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저가 수입품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면서, 화이트·블루칼라들의 '묻지마 지지'를 노리는 단기적인 정치적 노림수는 중장기적으로 수입비용과 미국 산업의 생산단가를 상승시키는 자충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충수가 미국 대중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이래 가속화된 세계화가 저가 수입품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람을 통해 저수준 백인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

키고, 미국의 빈부 격차만 심화시켰다는 극우 정치세력들의 선동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2008년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자면, 2008년의 위기가 투기적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감독 당국과 정치 세력들이 낳은 결과라면, 최근 상황은 빈부 격차에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을 활용한 선동적 정치 세력들이 초래하는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위기의 강도가 더 클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도 더 묘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2008년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요 국가들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에 협력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국제적 정책공조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를 필두로, 문제의 원인인 자국 내의 빈부 격차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책 노력이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유무역과 해외 요인으로 전가시키는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정책이 확산할 경

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모두 패권국가로서의 실력 행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른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발 세계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협력 노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각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용적 성장정책 노력이 확산할 경우,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세계 경제위기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하여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시키는 역할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라는 사실이다.

정책발언대



어기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월 31일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역의 노동계 및 현대차와 각각 20차례가 넘는 대화를 시도한 끝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게 됐다. 2021년 10만 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1000명의 직접고용과 1만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벤치마킹한 것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답이다

2000년대 초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다. 당시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은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공장을 세우고 실업자 5000명을 고용해 기존 노동자 임금보다 20%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했고, 이를 통해 고용 불안과 불황에 빠진 지역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수조건은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이다. 임금 인상의 자제는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기업, 지역에 복지 인프라와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리의 기본요건과

유형을 마련했다. 지역의 노·사·민·경 간 맺은 상생협약을 기본 전제로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임금협력형과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투자촉진형으로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업 유지 현황 등의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당과 국회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 임

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조선 등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거기에 딸린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가진 산업위기 지역이 있다. 앞으로 이들 위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스스로 발굴하는 고용창출력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는 사실상 유일한 복지다. 일자리가 없다는 자체가 삶의 고통이며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할 때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중섭(李仲燮) 명인
"잠든 애정이 충만할 때 비로소 마음이 밝아지는 법이다."

시대의 아픔과 굴곡 많은 생애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해낸 근대 서양화가. 대담하고 거친 선묘를 특징으로 하면서도 해학과 천진무구한 소년의 정감을 작품에 녹여냈다. 일본인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와 원산에서 결혼한 그는 부산, 제주, 통영 등지를 전전하며 그림을 그렸고, 재료가 없어 담뱃갑 은박지를 화폭 대신 쓰기도 했다. 이 은지화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어 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916-1956.

☆고사성어 / 득어망진(得魚忘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던 통발은 잊는다. 뜻을 이루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버리게 된다는 뜻. 원전은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리고 만다." [筌者所以在魚得魚而忘筌]

☆시사상식/찬 등지 증후군(Crowded nest syndrome)
빈 등지 증후군의 반댓말. 빈 등지 증후군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을 떠나 부모가 허전함을 느끼며 우울을 겪는 것을 말한다. 요새는 취업률 하락과 늦어지는 혼인 탓에 집을 떠나지 않는 자녀 때문에 걱정, 갈등, 우울을 겪는 부모가 늘고 있다.

☆우리말 유래 / 바둑이
털에 검은 점과 흰 점이 박혀 있는 개. 바둑판 무늬처럼 흰색과 검은 색의 바둑돌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머 / 천적
동물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무엇 일까요?"
남자 아이의 즉답. "여자 사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조현정 정치경제부/jhj@

'일하는 국회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않는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 단위로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듯 연일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대치가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또다시 국회를 외면할 것이다. 생산적 국회를 거듭하기 위해선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는 곤란하다. 지금은 '정쟁' 대신 '협치'가 필요한 때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4·3 보선의 '분노투표'

'1대 1 견제, 균형 택한 민심' 4월 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제목에 틀린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결과가 1대 1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권이 승리한 창원 성산의 경우는 '승리'라고 쓰고 '패배'라고 입을 만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창원 성산 지역은 '진보 1번지'라고 부를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권영길 전 의원부터 시작해 노회찬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진보 정객을 배출했다. 때문에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당연히 이른바 범여권 단일후보가 압승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압승이 아니라 신승이었다. 불과 0.52% 차이, 표수로 따지면 500표 남짓으로 한국당 후보가 패배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높은 투표율로 예상할 수 있었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4월 12일에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은 28.6%였고, 2015년 4월 29일 치러진 재보선은 3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이번 재보선 투표율 48.0%, 국회의원 보선 투표율 51.2%는 경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권자들의 분노다. 이번 재보선의 경이적인 투표율 역시 바로 이런 '분노투표'가 한몫했다고 생각할 수

신울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당 조직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30%대의 투표율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조직이 탄탄한 정당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반면 투표율이 45%를 상회할 경우에는 정당 조직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의 힘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야당일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분노투표'라고 할 때, 그 분노의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 같은 이론적 공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세력이 강세인 창원 성산에서 범여권 단일후보가 고전을 했다는 점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통영 고성에서는 거의 두 배 정도의 격차로 한국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

면,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분노투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1대 1이라고 해서 유권자가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권에서는 창원 성산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전인수도 보통 아전인수가 아니다. 만일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대국민 보여주기용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면 여권이 아직도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도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좀 솔직해지고 겸허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뱉는 여권의 오만함은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진다"고 말했다. 골프는 모르지만 적어도 선거는 오만함에 단죄를 내리는 성격이 확실하다. 여권이 걸맞다면 '촛불의 명령'을 말한다. 하지만 바로 그 촛불이 지금의 권력 집단에게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달 25일로 잡혀 있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 또 대표 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서비스도 11일부터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KT가 금융위원회에 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대출 중지의 경우 상품 내용과 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59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KT가 실권주를 떠안는 방식으로 보통주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높이기로 했다. KT 주도로 자본을 확충해 인터넷은행 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KT는 3월 금융위에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KT는 2016년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케이뱅크의 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렵게 됐다. 자본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대출을 늘리기 힘들다.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은 작년에도 몇 차례나 반복됐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같은 해 7월에는 2호인 카카오뱅크도 영업을 개시했다. 당초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는 컸다.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중금리 대출, 고액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금융혁신을 이끌 '메기' 역할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출범 후에도 중소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제한하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에 갇혀 자본 확충과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를 풀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작년 말 겨울 국회를 통과해 비금융기업의 지분 한도가 34%로 늘어나긴 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든 금융이든 혁신을 이루려면 관련 제도부터 혁신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과도한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혁신의 싹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혁신과 거리가 먼 낡은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는, 또다시 그렇고 그런 반쪽짜리 은행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뿐이다.



유발(誘發)과 촉발(觸發)

얼마 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원인이 무리한 지열발전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에만 눈이 팔린 나머지 몇몇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여 수립한 영터리 개발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을 주입하다가 결국은 지진을 일으켜 포항시민에게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니 이보다 더 뽕매하고 한심한 노릇이 없을 것 같다.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실험해본 꼴이 되었으니 포항 시민들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유발지진'이니 '촉발지진'이니 하는 말이 나왔다. 유발지진은 지구 내부 환경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석유나 가스의 채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 인간이 가한 어떤 작용으로 인하여 지구 내부에 응력변화와 변형이 생기므로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하며 대부분 작은

규모이다. 촉발지진은 마침 지구 내부 지진대의 환경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 직전의 임계점에 이르러 있을 때, 인간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 이 지진대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진을 말하며 이때는 대부분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유발은 '誘發'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필 유', '터질 발'이라고 훈독한다. '핍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유발이다. 즉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다른 일을 일으키는 것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촉발(觸發)의 '觸'은 '부딪칠 촉'이라고 훈독하며 "달거나 부딪쳐서 폭발하는 것"을 촉발이라고 한다.

함께 살아야 할 자연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개발하면 자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역공을 한다. 인류는 아직 자연의 역공이 일으키는 재앙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인류를 태운 '개발'이라는 이름의 열차는 이미 속도가 너무 높아서 내릴 수가 없다. 결국은 파멸에 이를 것인가!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노경아의 작은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저비용·작은 공간으로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을 맡은 르 코르뷔지에(1887~1965)의 최대 관심사였다. 고심 끝에 그는 마르세유에 고층 공동주택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세운다. 340여 가구에 무려 1600명이 살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세계 건축사에 '아파트의 효시'로 이름을 올린 바로 그 건물이다. 단순히 가족끼리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포함한 건축 개념이다. '르 코르뷔지에=현대건축의 아버지'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인을 만났다. 2년 전 봄 '르 코르뷔지에'를 같이 관람하며 '인간 중심' 아파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이다. 그날의 추억을 되살리자, 그녀가 어두운 표정으로 툭 한마디를 던졌다. "르 코르뷔지에가 저세상에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소음 문제로 위아래층 이웃끼리 다투고... 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땅을

발자국엔 소리가 없다

치며 울진 않을까요." 단독주택에 살 땐 '골목 주차' 문제로 힘들었는데, 아파트로 이사하니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새벽녘 청소기 돌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기본, 가끔 거실등이 흔들린다고도 했다. "건축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 르 코르뷔지에의 아파트 유토피아의 꿈은 우리나라에선 끼어들 여지가 없는 듯하다. 뒷집 아랫집 가릴 것 없이 집에서 뛰어놀기는커녕 까치발로 걸어야 하는 요즘 아이들이 가엾기 짝이 없다.

들머리(포털) 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다양한 소음들이 나온다.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구두 신고 걷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런데 이중 '발자국 소리'는 잘못된 표현이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다. 그러니 발자국은 눈에 보일 뿐 소리가 없다. 만약 발자국에서 소리가 난다면 그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남은 발자국끼리/서로 뜨겁게 한 몸을 이루다가/녹아버리는 것을 보면//눈길에 난 발자국만 보아도/서로 사랑하는 사람

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정호승 '발자국' 중),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오르텡스 블루 '사막' 중)"를 읽으면 '발자국'은 보이는 것'임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듯하다. 소름 돋는 감동은 덤이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말하고 싶다면 "발걸음 소리가 크다" 혹은 "발 소리가 크다"처럼 발걸음, 발소리를 활용하면 된다. 발걸음은 발을 옮겨서 걷는 동작을 뜻하므로 모양과 소리를 다 갖고 있다.

이웃끼리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씩 하며 정을 쌓으면, 소음만으로도 그 집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으니 아주 조금은 즐겁지 않을까. 시인 고영민도 "즐거운 소음"에서 이렇게 읊었다. "아래 층에서 못을 박는지/건물 전체가 울린다 //그 거대한 건물에 틈 하나를/만들기 위해/건물 모두가 제 자리를 내준다//그 틈, 못에 거울 하나가 내걸린다면/봐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양보하면/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은/일도 아니다/저 한 밤중의 소음을/나는 웃으면서 잡는다."

jsiysh@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